양양지방의 제사의식

양양문화원

양양8경

1경

남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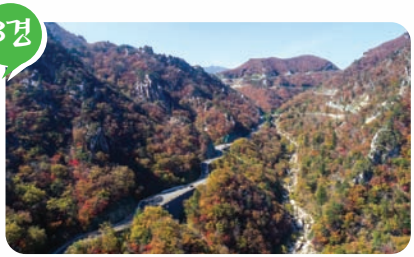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서 은어, 황어 가을에는 연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베리에서 큰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본능의 강이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2경

대청봉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 『동국명산기』에 '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였다' 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3경



오색령

원래 이름은 소솔령(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려 졌으며, 현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운집한다.

4경

주전골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염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5경

하조대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벽위에 우뚝 솟아 있는 육각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앞 바위에 하조대 라고 쓴 암각문이 남아있다.

6경

죽도정

죽도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둥근 돌이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7경

남애항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1종 국가어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양야산(陽也山)에 봉수대가 있었으며, 어판장에는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생선이 넘쳐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어촌 체험 항이다.

8경

의상대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다. 매월당 김시습이 낙산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와 양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목차

1. 동해신묘제(東海神廟祭) ---------- 3

2. 양양향교석전대제(襄陽鄕校釋奠大祭) ---------- 15

3. 양양동명서원제(襄陽東溟書院祭) ---------- 31

4. 양양문화제(襄陽文化祭) ---------- 37

5. 양양충렬사제(襄陽忠烈祀祭) ---------- 43

6. 양양송이축제(襄陽松栮祝祭) ---------- 49

7. 양양연어축제(襄陽鱒魚祝祭) ----------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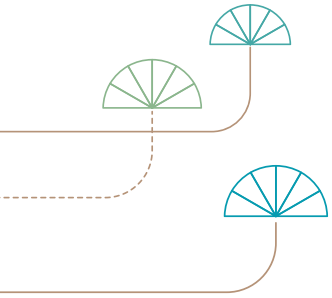
8. 양양군 마을 성황제(동제) ---------- 59

양양군 연혁

양양군은 강원도 영동중부에 위치하며, 기원은 20만~70만 년 전의 구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손양면 도화리 일원에서 전기 구석기에 속하는 '아슐리앙' 계통의 주먹도끼와 1천여 점의 뗀석기가 출토되면서 양양지역은 구석기시대 이른 시기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손양면 오산리에서도 8000년 전의 신석기유적이 발굴 되었다. 그 외 군내 여러 곳에서 청동기, 초기 철기문화 유적이 발견되어 신석기시대 이후 사람들은 주로 식량자원이 풍부한 큰 강가 또는 하천, 호수 주변의 대지나 해안가의 모래언덕에서 움집을 짓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기원전 127년 이전에는 성읍국가형태인 예국(濊國)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구려시대는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으로,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757)에 익령(翼嶺)이라 고쳐서 수성군(守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5도 양계제 실시에 따라 현령이 파견되고 동계(東界)에 속했다. 이때 동산현(洞山縣)을 속현으로 병합했다. 고종 8년(1221)에 양주(襄州)로 승격했으나 1253년에 양주현, 고종 44년(1257)에 읍호를 덕령(德寧)으로 격하하고 감무(監務)를 두었다. 원종(元宗) 원년(元年,1260)에 양주(襄州)로 복귀되어 지양주사(知襄州事)를 두고 별호양산(別號襄山)이라 하였다.

조선 태조 6년(1397)에 부(府)로 승격되었고, 태종 13년(1413) 군현제(郡縣制)로 개편 때 양주도호부(襄州都護府)로 바뀌었다. 태종 16년(1416)에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 개칭(改稱)되면서 지금까지 양양(襄陽)이라 부른다. 1618년~1791년까지



3차례나 현(縣)으로 강등(降等)되었다가 부(府)로 회복되었다. 지방제도 개정으로 1895년 강릉부 양양군, 1896년에 강원도 양양군이 되었다. 1914년 12개 면 중, 서면 · 현북면 · 현남면은 그대로, 군내면 · 부남면 · 위산면이 양양면으로, 동면 · 남면이 손양면으로, 강선면 · 사현면이 강현면으로, 도문면 ·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통합되어 7개면으로 재편되었다. 1915년 12월 25일 인제군 내면 (1973년 7월에 홍천군 내면으로 행정구역 편입) 광원리의 일부를 양양군 서면 조개리(명개리)에 편입, 1919년 토성면 · 죽왕면이 양양군으로 편입되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국토가 분단됨으로써 38° 선 이남인 현남면과 현북면 서면 남쪽 일부가 강릉군(江陵郡)에 속하였고 이북인 양양면 손양면 · 강현면과 · 서면 · 현북면의 대부분이 공산치하에 들어갔다. 1951년에 군 전역이 수복되고, 1954년 수복지구임시조치법(收復地區臨時措置法)에 따라 현남면이 명주군(溟州郡)에 편입되고 현북면과 서면 일부는 다시 본군에 환속되었다. 1963년 속초읍(束草邑)이 시(市)로 승격 분리되고 죽왕면(竹旺面) 토성면(土城面)이 고성군(高城郡)에 편입되는 반면 명주군(溟州郡) 현남면(縣南面)이 본군(本郡)에 환원되었다. 1973년 양양군 서면 명개리가 홍천군 내면으로 편입, 1979년에 양양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은 1읍 5면 124리 436반으로 개편되었다.

1

동해신묘제

東海神廟祭

1 동해신묘제(東海神廟祭)

■ 개요(概要)

- 주관(主管) : 양양군수(襄陽郡守))
- 장소(場所) : 동해신묘(東海神廟)
- 주신(主神) : 동해지신(東海之神)
- 향사(享祀) : 매년 별제(別祭) · 상제(常祭)
- 준비(準備) : 양양군청

■ 의미(意味)

양양의 동해신묘제(東海神廟祭)는 동해지신(東海之神)에게 국토수호,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했던 곳으로 왕(王)이 내린 향(香)과 축(祝)으로 매년 새해는 별제(別祭)를 2월과 8월에 상제(常祭)를 봉행하였다. 그러나 시대 변천에 따라 한때 주신을 동해광덕용왕지신(東海廣德龍王之神)을 모셨으나, 고증(考證)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위패(位牌)에 동해지신(東海之神)으로 고쳐 제례를 지내고 있다.

동해신묘

■ 유래(由來)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통치이념으로 매우 중시하여 왕이 직접 관리하며 강화되었다. 조선 태종 14년(1414) 8월 예조에서는 "동해는 양양, 남해는 나주, 서해는 풍천으로 정하고 치제(致祭)를 관(官)에서 주관하였다."고 했으며. 조선의 제전(祭典)을 대·중·소사로 등급을 정하였고, 악·해·독(嶽海瀆)은 이때에도 중사(中祀)로 모셨다.

동해신묘(東海神廟)는 황해도 풍천의 서해단(西海壇), 전라도 나주의 남해신사(南海神祠) 등과 함께 해신에게 국토수호,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곳으로 4해(海)의 으뜸인 동해지신(東海之神)이 주석하는 이곳에서 매년 관찰사가 제례를 봉행하여야 하나 양양군수가 대행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의 단묘 사직단 편에 동해묘는 부(府) 동쪽 10리 해상에 있으며 정전(正殿) 6칸, 신문(神門) 3칸, 전사청(奠祀廳) 2칸, 동·서재(東西齋) 각 2칸, 백천문(百川門) 1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1908년 일제 통감부 훈령에 의해 동해신묘를 훼철하였다. 그 후 1993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정전 6칸 1동이 건립되었다. 정전의 북·서쪽에 동해신묘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記事碑)를 1800년도에 강원도 관찰사 남공철이 세웠으나, 두 토막이 난 것을 양양군이 옛터에 복원하여 세워놓았다.

동해신묘중수기사비

■ 전통제례(傳統祭禮)〉 – 세종오례의(世宗五禮儀)

▶▷ 제사시일(祭祀時日)

서운관(書雲觀)에서 한 달 전에 중춘(仲春) 상순(上旬)으로 택일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仲秋에도 이에 준한다.)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중외(中外)의 유사(攸司)에 산고(散告)하여, 직책에 따라 공판(供辦)하게 한다. 사묘의 위판은 동해지신이라 쓰며, 묘를 간수하는 사람은 근처에 거주하는 양인이나 보충군·공천(公賤)중에서 2호를 정하여, 부역을 면제하여 항상 간수하며 청소하게 한다.

제사(諸祀 : 모든제사)의 의식(儀式) 내에 제사의 신단(神壇)과 묘원(廟園) 밖의 30보에는 땔나무와 짐승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경작(耕作)과 행인을 금하게 하였으며, 소나무를 심게 하였다.

신위를 설치하되 한가운데 있게 하고, 남쪽을 향하게 하며, 자리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축판은 소나무로 만드는데 높이는 1척 2촌이요, 폭은 8촌, 두께는 6푼이다.(1척의 길이는 28.621cm이다) 축문은"국왕 (성)(서명) 감소고"라 쓴다. 축문은 기일 전에 관원이 받들어 바치는데, 근신이 전해 받들어 이를 바치면 전하(殿下)가 서명하고 이를 마치면 친히 사신(使臣)에게 준다.

기고(祈告)하고 보사(報祀)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한다. 폐백(幣帛)의 길이는 1장(丈) 8척(尺)인데 저포(苧布)를 사용하는데 동해는 동쪽이므로 청색을 사용한다. 행사 집사관은 헌관(관찰사가 하는데, 만약 제소가 겹치면 수령을 나누어 보낸다), 축(祝), 장찬자(掌饌者), 사준자(司尊者), 찬창자(贊唱者), 찬례자(贊禮者)이다.

▶▷ 제사축문(祭祀祝文)

〈別 祭〉
維 歲次某年正月干支朔某日干支 大統領○○○委任將事使襄陽郡守
○○○
敢昭告于
東海之神伏以氣畜淵深五行伊始功弘灌溉萬物以成庶諒祈告之誠俾垂豐穰之慶兼任謹禱之至

동해지신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정기가 아득히 깊고도 넓게 쌓여 오행이 이에 시작하였나이다. 관개의 넓은 공을 고루 펴시어 만물이 생성하기를 헤아려 주시기를 정성을 다

해 비나이다. 오곡이 풍성하게 여무는 경사가 오래오래 드리워져서 겸임하여 삼가 계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常 祭〉
維 歲次某年某月干支朔某日干支 大統領○○○委任將事使襄陽郡守
○○○
敢昭告于
東海之神伏以百谷之王德著廣利享祀是宜永介多祉謹以牲幣醴齊粱盛庶品式陳明薦 尙 饗

동해지신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큰 바다의 왕이시어 널리 이롭도록 큰 덕을 베푸시니 이에 향사를 올림이 마땅하여 길이길이 많은 복을 이어 주시옵소서. 이로써 삼가 희생 폐백과 진한 술 그리고 여러 제물을 갖추어서 법대로 진설하고 밝게 드리오니 흠향하옵소서.

▶▷ 제사재계(祭祀齋戒)

제사 전 5일에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그중 3일 동안 산재(散齋)하는데,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2일 동안 치재(致齋) 하는데, 1일은 청사(廳事)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 전과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고,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문서(刑殺文書)에 결재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하며, 치재에는 오직 제사 일만을 행한다.

이미 재계하고 빠진 자는 통섭(通攝)하여 행사한다.(무릇 제사에 참예 할 사람은 다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제복(祭服)은 도(道)로 하여금 각사의 노비의 신공과 신세포(神稅布)를 써서 점차로 만들고 소재관이 제사를 행하는 데는 헌관(獻官)은 제복을 입고, 집사와 교생(校生)은 유관(儒冠)을 쓴다. 3품의 관은 3량이요, 혁대는 은을 사용하고, 패는 약옥(藥玉)을 사용하고, 수는 황색·녹색·적색·자색의 네 가지 빛깔의 실을 사용하여 반조화금(盤鳥花錦)을 짜서 만들고, 아래에는 청사망(靑絲網)으로 맺으며, 수의 고리는 2개인데, 은을 사용하고, 홀은 상아를 사용한다. 무릇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은 모두 우리 [滌] 에서 3개월 이상 기른 양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를 쓰는데, 희생들은 매질하여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죽으면 이를 묻고, 창병(瘡病)이 있는 것은 이를 대체시킨다.

▶▷ 제례진설(祭禮陳設)

제사 전 2일에 유사(有司)가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여러 제관(祭官)의 막차(幕次)를 설치한다. 또 찬만(饌幔)을 설치하되, 다 동문(東門) 밖에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한다.
전 1일에 신좌(神座)를 단상(壇上)에 설치하되, 북쪽에 남향하게 하고, 자리[席]는 왕골[莞]로 한다. 유사(有司)가 생(牲)을 이끌고 제소(祭所)로 나아가고, 헌관 자리를 단하(壇下)에 설치하되, 동남으로 서향하게 한다.

집사자의 자리는 헌관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여 북쪽을 상(上)으로 하고, 찬창자(贊唱者)·찬례자(贊禮者)의 자리를 동계(東陛)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여 북쪽을 상으로 한다. 헌관의 음복위(飮福位)는 단상의 남계(南陛) 서쪽에다 북향하여 설치하고, 문외위(門外位)를 설치하되, 헌관 이하는 동문 밖의 길 남쪽에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이 상이 되게 한다.

예감(瘞坎)을 단의 북쪽 임지(壬地)에 파되, 넓이와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하고, (해(海)·독(瀆)에는 예감(瘞坎)이 없다.) 남쪽으로 섬돌[陛]을 낸다. 망예위(望瘞位)는 예감의 남쪽에 설치하는데, 헌관(獻官)은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고, 축(祝)과 찬창자(贊唱者)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여 설치한다. 미시(未時) 뒤 2각(刻)에 유사(有司)가 단의 내외를 소제하고,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통상복으로 부엌에 나아가서 척탁(滌濯)을 보고, 찬구(饌具)를 살피며, 생의 충실하고 살찐 것을 본 후, 재소(齋所)로 돌아온다. 포시(晡時) 뒤에 장찬자(掌饌者)가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생(牲)을 잡는다.(가죽 째 삶아 익힌다.) 제삿날 행사 전에 집사자가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진설하고, 폐비(幣篚)를 준소에 진설한다.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신위 앞에 진설하고, 다음에 제기(祭器)를 설치하고, 장찬자(掌饌者)가 제수 담은 실찬구(實饌具)를 설치하되, 변(籩) 10개가 왼쪽에 있어 세 줄로 하여, 오른쪽을 상(上)으로 하고,(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鱐)·건조(乾棗)·율황(栗黃)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진자(榛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검인(芡仁)이 그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녹포(鹿脯)가 앞에 있고, 백병(白餠)·흑병(黑餠)이 그 다음이다.)

두(豆) 10개가 오른쪽에 있어 세 줄로 하여 왼쪽을 상(上)으로 한다.(첫째 줄에는 구저(韭菹)가 앞에 있고, 탐해(醓醢)·청저(菁菹)·녹해(鹿醢)가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근저(芹菹)가 앞에 있고, 토해(兎醢)·순저(筍菹)가 그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어해(魚醢)가 앞에 있고, 비석(脾析)·돈박(豚拍)이 그 다음이다.) 조(俎)가 2개인데, 하나는 변 앞에 있

고, 하나는 두 앞에 있다.(변(籩) 앞의 조에는 양성(羊腥)의 칠체(七體)를 담는데, 양비(兩髀)·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심[脊]이며, 넓적다리[髀]는 양쪽 끝에 있고, 어깨[肩]와 갈비[脅]는 그 다음에 있고, 등심[脊]은 가운데에 있다. 두(豆) 앞의 조(俎)에는 시성(豕腥)의 칠체(七體)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羊)과 같고, 모두 생갑(牲匣)이 있다.)

東海神廟 祭禮 饌實圖(동해신묘 제례 찬실도)

東海神廟 祭禮 饌實圖說(동해신묘 제례 찬실도설)

形鹽(형염)/호랑이 모형을 본떠 굳혀 만든 소금.
魚鱐(어수)/말린 고기
乾棗(건조)/말린 대추
栗黃(율황)/껍질을 벗겨 말린 밤
榛子(진자)/개암
菱仁(능인)/마름 열매
芡仁(검인)/가시연밥의 열매
鹿脯(녹포)/사슴고기 말린 포
白餠(백병)/흰 시루떡
黑餠(흑병)/검은 시루떡
韮菹(구저)/부추 저린 것
醢醢(탐해)/젓갈
菁菹(청저)/무 저림
鹿醢(녹해)/사슴 젓갈
芹菹(근저)/미나리 저림
兎醢(토해)/토끼 젓갈
筍菹(순저)/죽순 저림
魚醢(어해)/생선 젓갈
脾析(비석)/자라 복부를 가른 것
豚拍(돈박)/돼지고기

보(簠)·궤(簋)가 각각 2개인데, 변·두 사이에 있으며, 보가 왼쪽에, 궤가 오른쪽에 있다.(보에는 도(稻)·양(粱)을 담는데, 양이 도 앞에 있고, 궤(簋)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데, 직이 서 앞에 있다.) 등(甒)·형(鉶)이 각기 3개인데, 보·궤 뒤에 있어, 형이 앞에 있고, 등이 그 다음에 있다. (등에는 대갱(大羹)을 담고, 형에는 화갱(和羹)을 담는데, 모활(芼滑)을 더한다.) 작(爵)이 3개인데, 보·궤 앞에 있고,(각기 점(坫)이 있다.) 준(尊) 6개를 설치하는데, 모두 작(勺)과 멱(羃)을 얹어서 단 위의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무릇 준(尊) 하나에는 예제(醴齊)를 담고, 하나는 앙제(盎齊)를 담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고, 그 현주(玄酒)는 각 상준(上尊)에 설치한다.

무릇 신에게 제사하는 물건으로 당시에 없는 것은 시물(時物)로써 대신한다.) 세(洗)는 남쪽 섬돌[南陛]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다.)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洗)의 서남쪽에 늘어놓되 수건[巾]을 담아 놓는다.(만약 작세(爵洗)의 비라면 또한 작을 담아 놓는데, 점(坫)이 있다.)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는 또한 헌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준(樽)·뇌(罍)·비(篚)·멱(羃)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뇌·비·멱의 뒤에 설치한다.

▶▷ 제례행례(祭禮行禮)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장찬자(掌饌者)가 들어가 제수를 찬구(饌具)에 담기를 마치면, 집사자가 그 의복을 입고 올라와 신위판(神位版)을 자리[座]에 설치한다. 찬례자(贊禮者)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섬돌[南陛]로 해서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해 보고 도로 나온다. 전 3각(刻)에 여러 제관(祭官)이 각기 그 제복(祭服)을 입고, 찬창자(贊唱者)·찬례자(贊禮者)가 동문(東門)으로 해서 들어가, 먼저 단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하고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찬례자가 제관(祭官) 이하를 인도하여 함께 동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전 1각에 찬례자가 축(祝)과 집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단(壇) 남쪽 배위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하고 섰으면, 찬창자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하여, 축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서 관세한 뒤에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집사자가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서 작을 씻고 작을 닦고 나서, 준소(尊所)의 점(坫) 위에 놓는다.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가면, 찬창자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하여, 헌관이 네 번 절한다.
찬례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하고 아뢰면, 찬창자가 말하기를, "재배(再拜)하라."하여,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두 번 절한다. 찬창자가 말하기를,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하면,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

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여 홀을 꽂고, 손을 씻고 손을 닦게 한다.
찬하여 홀을 잡게 하고, 인도하여 단으로 나아가서 남쪽 섬돌[南陛]로 올라가,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면, 찬례자가 찬하여 꿇어앉아 홀을 꽂게 하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香合)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香爐)를 받들면, 찬례자가 찬하여 삼상향(三上香)하게 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향합을 받들고 폐백을 줄 적에는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올릴 적에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爵)을 주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찬례자가 찬하여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면,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창자가 말하기를, "초헌례를 행하라."하여,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섬돌[南陛]로 해서 올라가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가 멱(羃)을 들고 예제(醴齊)를 떠내면, 집사자가 작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여 꿇어앉아 홀을 꽂으면, 집사자가 작(爵)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이 작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동해신묘제 제례1

찬례자가 찬하여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축(祝)이 신위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찬례자가 찬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창자가 말하기를, "아헌례를 행하라."하여,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 앞으로 나아가서 서향하고 서면, 집준자가 멱을 들고 앙제(盎齊)를 떠낸다.
집사자가 작(爵)을 가지고 술을 받으면,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여 꿇어앉아 홀을 꽂게 하면,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찬례자가 찬하여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창자가 말하기를, "종헌례를 행하라."하여,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찬창자가 말하기를, "음복(飮福)하고 조육(胙肉)을 받으라."하면, 집사자가 준소로 나아가서 작으로 뇌(罍)의 복주(福酒)를 떠내고, 또 집사자가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 앞의 조육을 덜어낸다.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여 꿇어앉아 홀(笏)을 꽂으면, 집사자가 헌관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작을 헌관에게 준다.

동해신묘제 제례2

헌관이 작을 받아서 마시고, 작을 내면, 집사자가 빈 작을 받아서 점(坫)에다 도로 놓는다. 집사자가 서향하여 조(俎)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조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 남쪽 섬돌[南陛]로 해서 내려가 문을 나간다.
찬례자가 찬하여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창자가 말하기를, "재배하라."하면, 자리에 있던 자가 모두 두 번 절한다. 찬창자가 말하기를, "변(籩)·두(豆)를 걷어치우라."하면, 축(祝)이 나아가 변·두를 변·두 각기 하나씩을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긴다.
찬창자가 말하기를, "사배하라."하여, 헌관이 네 번 절하면, 찬창자가 말하기를, "망예(望瘞)하라."하면 헌관이 절하고 나면 폐백을 해(海)에 담근다. 찬례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예(禮)를 마쳤다."고 아뢰고 나서,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창자는 본디 자리로 돌아간다.
찬례자가 축(祝) 이하를 인도하여 단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서게 하면, 찬창자가 말하기를, "사배하라."하여, 축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찬례자가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찬창자와 찬례자가 단 남쪽 배위로 나아가 네 번 절하고서 나간다. 집사자가 신위판을 간수하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이에 물러간다.

■ 현재의 동해신묘제

▶▷ 의미(意味)

매년 1월 1일 새벽에 동해지신에게 강원도지사를 대리하여 양양군수가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한다. 향과 축은 군 자체에서 마련하고, 헌관은 초헌관 양양군수, 아헌관 양양군의회 의장, 종헌관은 양양문화원장이고, 제물은 날 것을 올리고, 폐백은 청색 비단을 올린다.

▶▷ 진행(進行)

찬창자(사회자)의 구령에 따라 제례가 진행된다.
헌관과 제집사, 참반원은 정해진 자리에 엄숙히 도열한다.
초헌관이 정전 안에 들어가 제사상의 제물을 살펴보고 나온다.
헌관이하 참례자는 일동 사배(四拜)를 한다.
전폐례(奠幣禮)를 행한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음복례(飮福禮)를 행한다.
철변두(撤邊豆)를 행한다.
헌관이하 제집사는 4배하고 참반원은 묵례한다.
망료례(望燎禮)를 행한다.(예전에는 폐백은 바다에 띄웠다.)
초헌관이 "예필(禮畢)"이라 큰소리로 아뢰면 제례는 끝난다.
신묘 안 제 집사들은 밖의 절하는 자리에 나와 4배(四拜) 한다.

■ 위패와 축문

위패(位牌)는 '東海之神'(동해지신)이라 쓴다.

축문(祝文)

구분	축 문	번 역
別祭 (별제)	國王諱謹遣臣襄陽郡守○○○ 敢昭告于 東海之神伏以氣畜淵深五行伊始功弘灌溉萬物以成庶諒祈告之誠俾垂豐穰之慶無任謹禱之至	국왕○○○가 보낸 신 양양군수○○○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동해지신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정기가 아득히 깊고도 넓게 쌓여 오행이 이에 시작하였나이다. 관개의 넓은 공을 고루 펴시어 만물이 생성하기를 헤아려 주시기를 정성을 다해 비나이다. 오곡이 풍성하게 여무는 경사가 오래오래 드리워질 것임으로 삼가 바라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常祭 (상제)	國王諱謹遣臣襄陽郡守○○○ 敢昭告于 東海之神伏以百谷之王德著廣利享祀是宜永介多祉謹以牲幣醴齊粱盛庶品式陳明薦尙　饗	국왕○○○가 보낸 신 양양군수○○○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동해지신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큰 바다의 왕이시어 널리 이롭도록 큰 덕을 베푸시니 이에 제사를 올림이 마땅하여 길이길이 많은 복을 이어 주시옵소서. 이로써 삼가 희생 폐백과 진한 술 그리고 여러 제물을 갖추어서 법대로 진설하고 밝게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2

양양향교석전대제

襄陽鄕校釋奠大祭

2 양양향교석전대제(襄陽鄕校釋奠大祭)

■ 개요(槪要)

- 주관(主管) : 양양향교 전교(襄陽鄕校典校)
- 장소(場所) : 양양향교 대성전(襄陽鄕校大成殿)
- 주신(主神) :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 향사(享祀) : 매년 2·8 상정일(上丁日)
- 준비(準備) : 양양향교

■ 의미(意味)

문묘(文廟)에서 공부자(孔夫子)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즉 만세종사(萬世宗師) 이신 공부자께서 남기신 인의도덕의 이상을 근본으로 삼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

대성전

야 할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실천과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리를 천명(闡明)함에 있어 배사모성(拜師慕聖)의 예로써 공부자께서 자리에 앉아 계신 듯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전례(奠禮)를 봉행하는 것을 석전이라 한다.

양양향교에서는 매년 춘기 2월 상정일(春期 陰 二月 上丁日)과 추기 8월 상정일(秋期 陰 八月 上丁日)에 5성(五聖)과 공문 10 철(孔門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 아국 18현(我國十八賢)께 석전(釋奠)을 봉행하였는데, 그동안 향교 운영상의 이유로 2006년까지는 2·8 상정일(上丁日)에 향교 대성전서 봉행, 2007년 공부자 기신일(忌辰日)과 탄강일(誕降日)로 변경, 2018년 춘기석전부터 다시 2·8 상정일(上丁日)로 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석전(釋奠)이란 문묘(文廟)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인(聖人)과 현인(賢人)들인 선성선현(先聖先賢)에게 매년 봄가을 지내는 제례 의식이다. 석(釋)은 '놓다[舍]' 또는 '두다[置]'의 뜻을 지닌 글자로써 '베풀다' 또는 '차려놓다'라는 뜻이며, 전(奠)은 추(酋)와 대(大)의 합성어(合成語)로 '추(酋)'는 술병에 술을 담은 뒤 덮개를 덮어놓은 형상으로 술을 의미하고, '대(大)'는 물건을 놓는 받침대를 상징한다. 따라서 석전은 술을 받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된다.

『주례(周禮)』 나 『예기(禮記)』 등의 경전 기록에 따르면, 석전은 본래 산천(山川)과 묘사(廟社)에서 거행하는 제사였고, 또 학교에서 선성선사(先聖先師)에게 올리는 제사를 석전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전자(前者)의 의식은 사라지고 학교에서 거행하는 제사 의식만을 석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석전은 '정제(丁祭)' 또는 '상정제(上丁祭)'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석전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석전제를 올리는 장소인 문묘에는 유학의 발전에 기여한 성현들의 신위가 등급에 따라 나뉘어 배치되어 있다.
석전의(釋奠儀) 정위(正位)는 공자 1위(位)이며,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 등의 4위가 배향위(配享位)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자의 대표적인 제자인 10철(哲)과, 송나라 성리학의 정통을 이었다고 평가받는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소옹(邵雍)·장재(張載)·주희(朱熹) 등을 종향위(從享位)로 삼았다. 그밖에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는 유학의 진흥에 공을 세운 우리나라의 성현 18명을 각각 모셨다.

양양향교석전대제 (襄陽鄕校釋奠大祭)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태조 7년(太祖, 1398), 숭교방(崇敎坊)에 성균관을 설치해 국립 최고학부의 기능을 다하게 했으며, 정전(正殿)인 대성전에는 공부자(孔夫子)를 비롯해서 4성, 공문 10철과 송조 6현 등 21위를 봉안했고, 동·서무에 우리나라 명현 18위를 봉안하여 매년 춘추 두 차례 석전을 받들어 행하였다.

그러나 일제 치하인 1937년부터는 양력 4월과 10월의 15일로 변경하여 실시하다가 해방 후인 1949년에 전국 유림대회의 결의로 5성위(五聖位)와 송조 2현(宋朝二賢)만 봉안하고 그 외 중국 유현을 매안(埋安)하고 우리나라 18현을 대성전에 승봉종향(陞奉從享)하고 춘추석전을 폐하고 탄일(誕日)인 음력 8월 27일에 기념 석전을 봉행하다가 2007년부터 공부자(孔夫子)의 기신일(忌辰日)을 양력(陽歷)으로 환산한 5월 11일에 춘기석전(春期釋奠)을 봉행하고, 탄강일(誕降日)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28일에 추기석전(秋期釋奠)을 봉행하였다.

그 이후 2014년부터 석전대제에 관하여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지정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라”는 문화재청의 공문지시에 따라 성균관은 2014년 추기 석전대제부터 일무(佾舞)와 아악을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지정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며, 예법에 따라 2·8 상정(上丁)일에 석전 봉행을 결정하고 2014년 추기석전부터 시행하였다.

내삼문

■ 유래(由來)

석전의 유래는 유학이 수입되고 국립 학교가 설립된 삼국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신라에서 신라 진덕여왕 2년(648)에 김춘추가 당나라 국학에서 석전 의식을 참관하고 돌아온 후 국학 설립을 추진한 점, 신라 성덕왕 16년(717)에 당나라로부터 공자·10철·72제자의 화상(畫像)을 가져와서 국학에 안치했던 점 등은 국학에서 석전이 봉행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려에서는 국학에 문묘를 설치하고 석전을 거행했으며, 왕이 직접 술잔을 올리는 헌작(獻酌)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태조 6년(1397) 6월 한양에 새 문묘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태조 6년(1397) 6월 2일 이듬해 완성되었다. 이후 정종 2년(1400) 2월 2일에 대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다가 태종 7년 3월 21일에 한양으로 재천도 한 이후에 재건되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되었다가 선조 34년(1601)부터 선조 37년(1604)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 복원하였다.

문묘에서의 석전은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거행되었으며, 중사(中祀)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조선의 문묘에 봉안된 신위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정비된 것을 살펴보면, 정전(正殿)인 대성전(大成殿)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四聖), 10철(哲)과 송조(宋朝)의 6현(六賢) 등 유학(儒學)에서 성인과 철인, 현인으로 받드는 인물 21위(位)가 봉안되었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는 우리나라의 명현 18위(位)를 봄과 가을로 1년에 두 차례씩 석전(釋奠)을 올렸다.

■ 절차 및 내용

조선 초기 국가 전례 정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실록』 「오례」에는 석전의 의식이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시학작헌문선왕의(視學酌獻文宣王儀)는 국왕이 성균관에 행차하여 문묘의 공자 신위에 술을 올리고,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학(視學) 하는 의식이다. 시학은 국왕이 유생들의 공부 상황을 둘러보는 것을 가리키며, 때로는 알성시(謁聖試)를 베풀어 인재를 뽑기도 하였다. '왕세자석전문선왕의(王世子釋奠文宣王儀)'는 왕세자가 주관하여 석전을 거행하는 의식이며, '유사석전문선왕의(有司釋奠文宣王儀)'는 관원들이 주관하여 석전을 거행하는 의식이다. 마지막으로 '주현석전문선왕의(州縣釋奠文宣王儀)'는 각 주현에 있는 향교에서 거행하는 석전 의식이다.
이상(以上)은 석전의 의식들이 성종 대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새로운 의식들이 추가 또는 세분화(細分化)되고 명칭도 일부 조정되어 수록되었다. 『국조오례의』에 실린 석전 의식은 향문선왕시학의(享文宣王視學儀), 작헌문선왕시학의(酌

獻文宣王視學儀), 왕세자작헌문선왕입학의(王世子酌獻文宣王入學儀), 왕세자석전문선왕의(王世子釋奠文宣王儀), 유사석전문선왕의(有司釋奠文宣王儀), 문선왕삭망전의(文宣王朔望奠儀), 문선왕선고사유급이환안제의(文宣王先告事由及移還安祭儀), 주현석전문선왕의(州縣釋奠文宣王儀), 주현문선왕선고사유급이환안제의(州縣文宣王先告事由及移還安祭儀) 등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정비된 석전 의식은 조선 후기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이어졌다. 또, 광무 1년(1897) 대한제국 선포 이후 제정된 『대한예전(大漢禮典)』에서도 왕세자가 황태자, 문선왕이 문묘(文廟)로 바뀌는 등의 명칭 변화만 있을 뿐, 실제 거행되는 의식의 절차는 『국조오례의』의 내용을 준수하였다.

석전대제 제례1

■ 헌관 급 제집사 분방

헌관 및 제집사의 인원은 대성전 3명, 동서종(東·西從) 각 1명, 동서무(東西廡) 각 1명, 집례, 대축, 알자(謁者), 찬인(贊人) 각 1명, 봉향(奉香), 봉로(奉爐), 봉작(奉爵), 전작(奠爵), 사준(司樽), 동종봉향(東從奉香), 동종봉작(東從奉爵), 동종전작(東從奠爵), 동종사준(東從司樽), 서종봉향(西從奉香), 서종봉작(西從奉爵), 서종전작(西從奠爵), 서종사준(西

從司樽), 동무봉향(東廡奉香), 동무봉작(東廡奉爵), 동무전작(東廡奠爵), 동무사준(東廡司樽), 서무봉향(西廡奉香), 서무봉작(西廡奉爵), 서무전작(西廡奠爵), 서무사준(西廡司樽), 고수(鼓手), 전사관(典司官) 등 총 34명이다.

대성전의 초헌관은 본래 양양향교 전교(典校)이다. 그러나 변경하여 지금은 초헌관은 양양군수,아헌관은 의회의장, 종헌관은 외부 기관장이 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동서종(東西從)과 동서무(東西廡) 헌관 및 집례는 유림회원 중에서 학덕이 있는 적임자를 선정한다. 기타 제 집사는 청년회원 중에서 적격한 자를 결정한다.

▶▷ 진행(進行)

집례의 창홀(唱笏)에 따라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수의 진설을 살핀다.
찬인(贊人)은 축관과 제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수(盥手), 세수(帨手)하고 네 번 절하고 대성전 각각자리에 오른다.
알자와 찬인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분헌관을 인도하여 소정 위치에 들어간다.
알자(謁者)가 삼헌관에게 행사를 알린다.
헌관 이하 참례자는 일동 사배(四拜)를 한다.

전폐례(奠幣禮)를 행한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분헌례(分獻禮)를 행한다.
음복례(飮福禮)를 행한다.
망료례(望燎禮)를 행한다.

헌관 및 집사의 명칭과 임무

- 초헌관(初獻官) : 5성위(聖位)에 향을 사르고 첫 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제사의 주인이다.
- 아헌관(亞獻官) : 5성위에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
- 종헌관(終獻官) : 5성위에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

- 분헌관(分獻官) : 동종 · 서종 · 동무 · 서무에 향을 사르고 잔을 올리는 제관.
- 전사관(典祀官) : 나라의 제사에 제수를 준비하고 제상을 차리는 일을 맡은 제관.
- 대축(大祝) : 축문을 읽는 제관.
- 알자(謁者) :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을 안내하는 집사.
- 찬인(贊引) : 분헌관과 대축 등 제집사를 안내하는 집사.
- 봉향(奉香) : 향(香)을 받드는 집사.
- 봉로(奉爐) : 향로를 받드는 집사.
- 봉작(奉爵) : 준소(樽所)에서 사준이 따른 술잔을 받아 헌관에게 건네주는 집사.
- 전작(奠爵) : 헌관에게서 술잔을 받아 신위 앞에 올리는 집사.
- 사준(司樽) : 준소(樽所)에서 술을 잔에 따르는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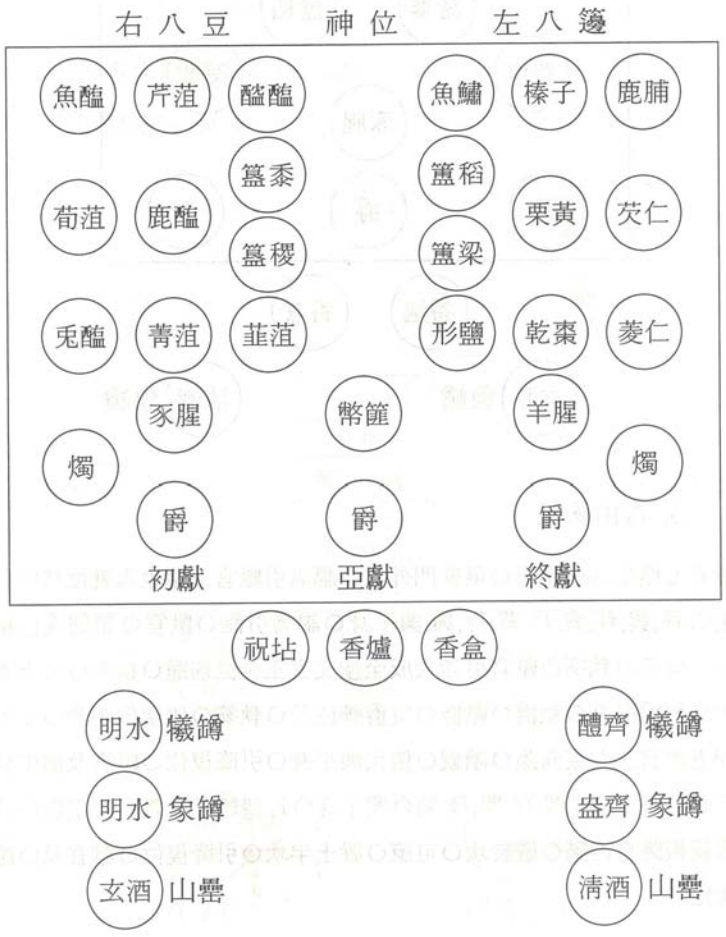
■ 제물 · 제구 · 제복 · 축문

▶▷ 제물

어해(魚醢), 근저(芹菹), 순저(筍菹), 녹해(鹿醢), 탐해(醓醢), 궤서(簋黍), 궤직(簋稷), 토해(兎醢), 정저(菁菹), 시성(豕腥), 구저(韭菹), 폐비(幣篚), 어수(魚鱐), 진자(榛子), 녹포(鹿脯), 보도(簠稻), 보양(簠粱), 형염(形塩), 황율(黃栗), 건조(乾棗), 양성(羊腥), 자인(茨仁), 능인(菱仁), 제주(祭酒) 등이다.

▶▷ 제구

방형 뚜껑이 있는 보(簠), 원형 뚜껑의 궤(簋), 향합(香盒), 향로(香爐), 촉대(燭台), 변두(籩豆), 유작(鍮爵), 유잔(鍮盞), 준(樽), 저(菹), 식상(食床) 주전자(酒煎子) 등이다.



석전대제 진설도

▶▷ 제복

헌관과 집례, 대축, 알자, 찬인, 전사관은 금관제복(金冠祭服)을 입는다.
제집사는 유건도복(儒巾道服)을 입는다.

〈축문〉

維 檀君紀元○○○○年 歲次太歲某月干支 朔某日干支 襄陽郡守 某 敢昭告于
大成至聖文宣王 伏以維王 道冠百王 萬世宗師 玆值上丁 精禋是宜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式陳明薦 以先師兗國復聖公 郰國宗聖公 沂國述聖公 鄒國亞聖公 配享 孔門十哲 宋朝六賢 我國十八賢 從 尙饗

유 단군기원○○○○년 세차태세모월간지 삭모일간지 양양군수 모 감소고우
대성지성문선왕 복이유왕 도관백왕 만세종사 자치상정 정인시의 근이 생폐예제 자성서품 식진명천 이 선사 연국복성공 성국종성공 기국술성공 추국아성공 배향 공문십철 송조 6현 아국 18현 종 상향

석전대제 제례 2

▶▷ **5성(五聖)**

- 공부자(孔夫子) : 명(名)은 구(丘)요, 자(字)는 중니(仲尼)이며 노(魯)나라 사람으로 부(父)는 숙량흘이요, 모(母)는 안씨(顔氏)이다. 노(魯)나라 대사구(大司寇)를 지냈으며,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으로 추존(追尊)됨.

- 안자(顔子) : 명(名)은 회(回)요, 자(字)는 자연(子淵)이며, 노(魯)나라 사람으로 부(父)는 무요(無繇)이며, 모는 강씨(姜氏)이다. 연국복성공(兗國復聖公)으로 추봉(追封)됨.

- 증자(曾子) : 명(名)은 삼(參)이요, 자(字)는 자여(子輿)이며 노(魯)나라 사람으로 점(點)의 아들이요 성국종송공(郕國宗聖公)으로 추봉됨.

- 자사(子思) : 명(名)은 급(伋)이요, 자(字)는 자사(子思)이며, 부(父)는 리(鯉)요, 공부자의 손자이다. 기국술성공(沂國述聖公)으로 추봉됨.

- 맹자(孟子) : 명(名)은 가(軻)요, 자(字)는 자거(子車)이며, 추(鄒)나라 사람으로 부(父)는 격공의(激公宜)요, 모(母)는 장씨(仉氏)이다. 추국아성공(鄒國亞聖公)으로 추봉됨.

▶▷ 공문 10철(孔門十哲)

- 민손(閔損) : 자(字)는 자건(子騫)이요, 노(魯)나라 사람이며, 비공(費公)으로 추봉됨.

- 염경(冉耕) : 자(字)는 백우(伯牛)요, 노(魯)나라 사람이며, 운공(鄆公)으로 추봉됨.

- 염옹(冉雍) : 자(字)는 중궁(仲弓)이요, 노(魯)나라 사람이며, 설공(薛公)으로 추봉됨.

- 재여(宰予) : 자(字)는 자아(子我)요, 노(魯)나라 사람이며, 제공(齊公)으로 추봉됨.

- 단목사(端木賜) : 자(字)는 자건(子騫)이요, 위(衛)나라 사람이며, 여공(黎公)으로 추봉됨.

- 염구(冉求) : 자(字)는 자유(子有)요, 노(魯)나라 사람이며, 서공(徐公)으로 추봉됨.

- 중유(仲由) : 자(字)는 자로(子路)요, 노(魯)나라 사람이며, 위공(衛公)으로 추봉됨.

- 언언(言偃) : 자(字)는 자유(子游)요, 오(吳)나라 사람이며, 오공(吳公)으로 추봉됨.

- 복상(卜商) : 자(字)는 자하(子夏)요, 위(魏)나라 사람이며, 위공(魏公)으로 추봉됨.

- 전손사(顓孫師) : 자(字)는 자장(子張)이요, 진(陳)나라 사람이며, 진공(陳公)으로 추봉됨.

▶▷ 송조 6현(宋朝六賢)

- 주돈이(周惇頤) : 자(字)는 무숙(茂叔), 호(號)는 염계(濂溪)이며, 송(宋)나라로 도주한 사람이다. 관(官)은 남강군사(南康郡事)요, 여남백(汝南伯)이며, 도국공(道國公)으로 추봉되었다.

- 정 호(程 顥) : 자(字)는 백순(伯淳), 호(號)는 명도(明道)이며 송(宋)나라 하남(河南)사람이다. 관(官)이 종정사승(宗正寺丞)이요, 하남백(河南伯)이며, 예국공(豫國公)으로 추봉되었다.

- 정 이(程 頤) : 자(字)는 정숙(正叔)이요, 호(號)는 이천(伊川)이며, 명도(明道)의 아우이다. 관(官)은 선의랑(宣義郎)이요, 이천백(伊川伯)이며, 낙국공(洛國公)으로 추봉되었다.

- 소 옹(邵 雍) : 자(字)는 요부(堯夫)요, 호(號)는 안락(安樂)이며, 송(宋)나라 하남(河南)사람이다. 관(官)이 영주단련추관(潁州團練推官)이요, 시(諡)는 강절(康節)이다. 신안백(新安佰)으로 추봉되었다.

- 장 재(張 載) : 자(字)는 자후(子厚)요, 호(號)는 횡거(橫渠)이며, 송(宋)나라 봉상미현(鳳翔郿縣)사람이다. 관(官)이 동지태상예원(同知太常禮院)으로 미백(郿伯)으로 추봉되었다.

- 주 희(朱 熹) : 자(字)는 원회(元晦)요, 호(號)는 회암(晦菴)이며, 송(宋)나라 무원(婺源)사람이다. 관(官)이 사훈이부랑(司勳吏部郎)이요, 휘국공(徽國公)으로 추봉되었다.

▶▷ 아국 18현(我國十八賢)

- 설 총(薛 聰) : 자(字)는 총지(聰智)요, 호(號)는 빙월당(氷月堂)이며, 경주사람이다. 부(父)는 승(僧) 원효(元曉)요, 관(官)이 한림학사(翰林學士)이며, 홍유후(弘儒侯)로 추증되었다.

- 최치원(崔致遠) : 자(字)는 고운(孤雲)이며 호(號)는 해운(海雲)이며, 경주사람이다.

신라 때 관(官)이 한림학사(翰林學士)였으며, 시호는 문창후(文昌侯)이다.

- 안 유(安 裕) : 초명(初名)이 향(珦)이며, 자(字)는 사온(士蘊)이며, 호(號)는 회헌(晦軒)으로 순흥사람이다. 고려 충렬왕 때 관(官)이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이었으며, 시호는 문성공(文成公)이다.

- 정몽주(鄭夢周) : 자(字)는 달가(達可)요, 호(號)는 포은(圃隱)이며, 영일사람이다. 고려 공민왕 때 관(官)이 시중(侍中)이었으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 김굉필(金宏弼) : 자(字)는 대유(大猷)요, 호(號)는 한훤당(寒暄堂)이며, 서흥사람이다. 관(官)이 형조좌랑(刑曹佐郎)이며, 중종 때 우의정을 증직 받았고, 시호는 문경공(文敬公)이다.

- 정여창(鄭汝昌) : 자(字)는 백욱(伯勗)이요, 호(號)는 일두(一蠹)이며, 하동사람이다. 관(官)이 현감(縣監)이었으며, 우의정을 증직 받았고, 사호는 문헌공(文獻公)이다.

- 조광조(趙光祖) : 자(字)는 효직(孝直)이요, 호(號)는 정암(靜庵)이며, 한양사람이다. 관(官)이 대사헌(大司憲)이며,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시호는 문정공(文正公)이다.

- 이언적(李彦迪) : 자(字)는 복고(復古)요, 호(號)는 회재(晦齋)이며, 주사람이다. 관(官)이 죄찬성(左贊成)이며,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사호는 문원공(文元公)이다.

- 이 황(李 滉) : 자(字)는 경호(景浩)요, 호(號)는 퇴계(退溪)이며, 진성사람이다. 관(官)이 대제학(大提學)이며,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시호는 문순공(文純公)이다.

- 김인후(金麟厚) : 자(字)는 후지(厚之)요, 호(號)는 하서(河西)이며, 울산사람이다. 관(官)이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이며,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시호는 문정공(文正公)이다.

- 이 이(李 珥) : 자(字)는 숙헌(叔獻)이요, 호(號)는 율곡(栗谷)이며 덕수사람이다. 관(官)이 이조판서(吏曹判書)이며,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시호는 문성공(文成公)이다.

- 성 혼(成 渾) : 자(字)는 호원(浩原)이요, 호(號)는 우계(牛溪)이며 창령사람이다. 관(官)이 좌참찬(左參贊)이며,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시호는 문간공(文簡公)이다.

- 김장생(金長生) : 자(字)는 희원(希元)이요, 호(號)는 사계(沙溪)이며, 광산사람이다. 관(官)이 형조참판(刑曹參判)이며,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시호는 문원공(文元公)이다.

- 조 헌(趙 憲) : 자(字)는 여식(汝式)이요, 호(號)는 중봉(重峯)이며 백천사람이다. 관(官)이 첨정(僉正)이며,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시호는 문열공(文烈公)이다.

석전대제 제례 3

- 김 집(金 集) : 자(字)는 사강(士剛), 호(號)는 신독재(愼獨齋)이며, 부(父)는 장생(長生)이다. 관(官)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이며,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시호는 문경공(文敬公)이다.

- 송시열(宋時烈) : 자(字)는 영보(英甫)요, 호(號)는 우암(尤庵)이며, 은진사람이다. 관(官)이 좌의정(左議政)이며,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시호는 문정공(文正公)이다.

- 송준길(宋浚吉) : 자(字)는 명보(明甫)요, 호(號)는 동춘당(同春堂)이며, 은진 사람이다. 관(官)이 좌참찬(左參贊)이며,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시호는 문정공(文正公)이다.

- 박세채(朴世采) : 자(字)는 화숙(和叔)이요, 호(號)는 현석(玄石)이며, 반남사람이다. 관(官)이 좌의정(左議政)이며,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시호는 문순공(文純公)이다.

3

양양동명서원제

襄陽東溟書院祭

3 양양동명서원제(襄陽東溟書院祭)

■ 개요(概要)

- 주관(主管) : 양양동명서원 원장(襄陽東溟書院 院長)
- 장소(場所) : 동명서원 충현사(東溟書院忠賢祠)
- 배향(配享) : 조인벽(趙仁璧)·조 사(趙 師)
- 향사(享祀) : 매년 음력 3월 정일(每年陰曆三月丁日)
- 준비(準備) : 동명서원

■ 의미(意味)

인조 6년(1628) 본부사(本府使) 조위한(趙緯韓)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유림의 공의로 조인벽(趙仁璧)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충현사(忠賢祠)를 설립하여 위패를 모시고 동명서원이라 하였다. 그 후 조인벽의 넷째 아들 조사(趙師)를 추가로 배향하고, 매년 음력 3월 정일(丁日)에 향사(享祀)를 지내며, 서원 당직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한다.

■ 유래(由來)

조선 인조 1년(1623)에 양양도호부사로 부임한 조위한(趙緯韓)은 조산리에 있는 수군기지 대포영(大浦營)의 군기와 군량이 본부로 옮겨져 빈 건물을 서원으로 전용하기로 하고, 유림 대표 등과 계획하여 노경복(盧景福)이 주도하고 지방유림 대표 최정립·이현일이 감독하여 사당(祠堂)을 짓고, 군용 건물을 개보수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과 선현의 뜻을 받들어 교육을 실시하는 강당과 학도가 숙식하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이 외에 문집이나 서적을 펴내는 장판고(藏版庫), 책을 보관하는 서고, 제사에 필요한 제기고(祭器庫), 서원의 관리와 식사 준비 등을 담당하는 고사(庫舍) 등이 설치되었다.

양양 동명서원 충현사

한편, 부사는 동명서원 운영에 자급되도록 둔전 일곱 마지기, 소금가마 1좌, 어선 1척, 재복(재의 종) 1인, 경비원 두 집을 전속하였다. 여기서 생산하는 양곡과 소금과 어물이 춘추 향사의 수품을 조달하고 여러 유생의 식사 및 독서에 쓰도록 하였고, 서원의 재산은 세금도 면제하고, 동명서원 여러 유생에게는 부역이나 병역까지도 면제해주어 공부에만 열중(熱中)토록 하였다.

최초 창건한 조산리 서원이 화재로 소실되자 그의 제자와 후예들이 정조 10년(1786)에 경북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에 이전 복원하였다. 그 후 고종 8년(1871)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된 후, 광무 2년(1898)에 재건을 목적으로 강원도 관찰사 조종필(趙鐘弼)이 창건지인 조산리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웠으며, 1979년 양양지역 유림과 한양 조씨 종중에 의해 1982년 지금의 자리에 사당과 강당을 복원하고 양열공(襄烈公)을 배향(配享)하고 있다.

■ 진행(進行)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음복례(飮福禮)를 행한다.

망료례(望燎禮)를 행하다.

■ 헌관 및 집사의 명칭과 임무

- 초헌관(初獻官) : 향을 사르고 첫 잔을 올리는 제관(祭官)으로 제사의 주인(主人)이다.
- 아헌관(亞獻官) :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祭官)
- 종헌관(終獻官) :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祭官)
- 분헌관(分獻官) : 종향위(從享位)나 배향위(配享位)에 향을 사르고 술잔(淸酒)을 올리는 제관
- 집례(執禮) : 한문 홀기를 읽어 진행을 담당하는 제관
- 찬창(贊唱) : 집례(執禮)를 보좌하는 제관
- 대축(大祝) : 축문(祝文)을 읽는 제관
- 알자(謁者) : 헌관(獻官)을 인도하는 제관
- 찬인(贊人) : 집례(執禮). 대축(大祝). 제집사(諸執事)를 인도하는 제관
- 봉향(奉香) : 향을 받드는 집사
- 봉로(奉爐) : 향로를 받드는 집사
- 봉작(奉爵) : 준소(樽所 : 술항아리를 놓아두는 곳)에서 사준(司樽)이 따른 술잔을 받아 헌관에게 건네주는 집사
- 전작(奠爵) : 헌관으로부터 술잔을 받아 신위 앞에 올리는 집사
- 사준(司樽) : 준소에서 술을 따르는 집사

동명서원제 제례

■ 축문(祝文)

(유 단군기원○천○백○십○년세차□□○월□□미삭○○日□□)
維 檀君紀元○千○百○十○年歲次□□○月□□未朔○○日□□
(감소고우)
院長 ○○○
敢昭告于
(원장)
(양렬공우계조선생(신위전) 복이선생도덕구존세고기절충정관일)
襄烈公愚溪趙先生(神位前) 伏以先生道德俱尊世高其節忠貞貫日
(징벽부취도해고풍채국하심유방미말산고수장근이생폐례제식진)
徵辟不就蹈海高風採菊遐心遺芳未沫山高水長謹以牲幣醴齊式陳
(명천이가천재조공배상)
明薦以嘉川齋趙公配 尙
饗(향)

4

양양문화제

襄陽文化祭

4 양양문화제(襄陽文化祭) – 고치물祭·城隍祭

■ 개요(槪要)

- 주관(主管) : 양양문화원(襄陽文化院)
- 장소(場所) : 고치물샘터·성황사
- 주신(主神) : 양양성황지신(襄陽城隍之神)
- 향사(享祀) : 매년 단오 전후
- 준비(準備) : 양양문화원

■ 의미(意味)

양양문화제는 고려 목종 10년(1007)에 양주성(襄州城)을 축성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지낸 것이 효시(嚆矢)이다. 그 후부터 매년 양양지방에서는 성황사에 모셔진 성황지신께 유교방식으로 제사하였는데, 고려 때는 주신을 '양주성황지신(襄州城隍之神)'이

성황사

라했고, 조선시대에는 '양양성황지신(襄陽城隍之神)'을 모시고, 부민(府民)의 안위와 풍농 풍어, 집안의 태평 등을 기원하는 제례를 봉행하였다.

제례 절차는 먼저 고치물제를 지낸 후에 성황제를 지냈는데, 제주(祭主)는 고치물[서문리 양지마을 샘물]을 마시고, 제수(祭需)를 만들 때도 고치물을 사용하였다. 고치물 샘터는 항상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다고 구전되고 있다.

■ 유래(由來)

1968년도에 군민들의 성미[誠米:신불(神佛)에게 바치는 쌀]로 성황제를 매년 단오 날(5월 5일)에 제례를 지내왔다. 그 후 향토 고유의 전통문화제를 제정하기 위하여 1979년 2월 5일 현산문화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성을 찾아 전례의 민속 일인 음력 정월 대보름을 제전일(祭典日)로 하여 제1회 현산문화제로 명칭을 정하고 전야제와 본제(本祭)를 행하였다.

양양성황지신제 진설

그러나 정월 대보름은 계절적으로 범 군민적인 축제 행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여 1980년부터 본고장이 기미만세운동 시 지방으로는 가장 치열했던 항쟁지로써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하여 3월 1일을 제전일(祭典日)로 정하여 4회까지 진행하였다.

1983년 제5회부터 이 고장 기미만세운동의 역사성에 바탕을 두어 함홍기(咸鴻基) 의사가 일경의 서장실로 뛰어 들어가 맨손으로 저항하다 장렬하게 순국하면서 우리고장 만세운동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실질적인 발발일(勃發日)인 4월 4일로 변경하여 제7회부터 제11회까지 거행하였다. 제12회부터는 기후와 농사철을 감안 다시 단오절을 전후하여 일자를 정하도록 하였다.

2016년부터 현산문화제의 현산(峴山)지명은 모화사상(慕華思想)의 잔재임으로 양양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맞지 않아 양양지명과 일치시켜 양양문화제(襄陽文化祭)로 정착(定着)시켜 전 군민이 화합하는 향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진행(進行)

▶▷ 고치물 제례

고치물祭 焚香

獻官以下入就位
謁者引 獻官詣 盥洗位 盥手帨手
고치물 前 跪 三上香
執爵 奠爵 獻爵 興 平身
再拜 獻官 詣 고치물 前 跪
고치물 飮取 俯伏 興 平身
獻官以下 參禮員 一同 皆再拜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獻官以下 次出

고치물제 분향

헌관이하입취위
알자인 헌관예 관세위 관수세수
고치물 전 궤 삼상향
집작 전작 헌작 흥 평신
재배 헌관 예 고치물 전 궤
고치물 음취 부복 흥 평신
헌관이하 참례원 일동 개재배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헌관이하 차출

고치물제 진설

고치물제 제례

▶▷ 성황제례

강신례(降神禮)를 행하다.

참신례(參神禮)를 행하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음복례(飮福禮)를 행한다.

사신례(辭神禮)를 행하다.

양양문화제 제례

5

양양충렬사제

襄陽忠烈祠祭

5 양양충렬사제(襄陽忠烈祀祭)

■ 개요(槪要)

- 주관(主管) : 양양군수(襄陽郡守)
- 장소(場所) : 충렬사(忠烈祠)
- 배향(配享) : 애국지사(愛國志士)
- 향사(享祀) : 매년 3·1절(每年三·一節)
- 준비(準備) : 양양군청.

■ 의미(意味)

양양지역은 3·1독립만세운동의 성지(聖地)이다. 1919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6일 동안 15,000여 명이 양양장터와 기사문리 주재소·물치장터·대포항 주재소 등에서 치열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만도 수백 명이 발생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국가보훈처가 인정한 유공자는 27명뿐이다.

충렬사

이에 군민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1년도 양양읍 군향리 19-1번지 대지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을 신축하고 충렬사(忠烈祠)라 명명한 후 국가인정 독립유공자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운동사에 의거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3·1절에 추모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를 공포시행함에 따라 제4조에 의거(依據)하여 과거에 운영하던 제례방식(祭禮方式)을 개선하여 당시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공적이 있다 하여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지 못하신 유공자는 제외되며, 반면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殉國先烈)은 순국선열 현충사에 모시고, 애국지사는 이곳 충렬사에 모시고 매년 3·1절 기념일에 제례를 봉행하게 된다.

충렬사제 진설

■ 진행(進行)

참신례(參神禮)를 행한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음복례(飮福禮)를 행한다.

사신례(辭神禮)를 행한다.

분축례(焚祝禮)를 행한다.

축관과 제집사는 절하는 자리에 나와 제배한다.

■ 위패와 축문

위패(位牌)는 애국지사 ○○○신위(愛國志士 ○○○神位)라 쓴다.

축문(祝文)

維	유
檀君紀元○○○年 歲次○○	단군기원○○○년 세차○○
陽 三月 一日 ○○	양 삼월 일일 ○○
襄陽郡守 ○○○ 敢昭告于	양양군수 ○○○ 감소고우
己未獨立 愛國志士○○位	기미독립 애국지사○○위
○諸神位 伏以	○제신위 복이
抗日 盡忠 庶勳重次 萬民欽羨	항일 진충 서훈중차 만민흠선
是效是則 永世不忘 爰及朞日	시효시칙 영세불망 원급기일
精禋是宜 謹以醴齊 粢盛庶品	정인시의 근이예제 자성서품
式陳明薦 尙 饗	식진명천 상 향

오늘 ○○년 3월 1일 양양군수 ○○○는 감히 기미독립 애국지사○○위 신위 앞에 밝게 고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일본에 항거하여 충성을 다했으니, 공은 무겁고 가벼움이 있으나 의기는 일반이라 이에 본받고 법하여 영세토록 잊지 못하여 이에 그날에 이르러 크게 제사함이 마땅하므로 삼가 예제와 여러 제물로 법도를 베풀어 밝게 드리오니 높이 흠양하소서.

충렬사제 제례 1

충렬사제 제례 2

6

양양송이축제

襄陽松栮祝祭

6 양양송이축제(襄陽松栮祝祭) – 설악산신제(雪嶽山神祭)

개요(槪要)

- 주관(主管) : 양양문화재단(襄陽文化財團)
- 장소(場所) : 양양남대천 둔치
- 주신(主神) : 설악산신(雪嶽山神)
- 향사(享祀) : 매년 송이축제일
- 준비(準備) : 양양문화재단

의미(意味)

양양 송이버섯은 가을철 최고의 맛과 독특한 향을 지닌 버섯으로 다른 말로 천년의 향 송이(千年香松栮)라고도 부른다. 양양 송이(松栮)의 특성을 살펴보면 송이과의 버섯으로 솔잎이 쌓인 습지에만 자라는데 줄기는 원통이고 갓의 지름은 약 20㎝ 정도이다. 생태환경은 산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이 아니면 자라지 않는 까다롭고 신비한 버섯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장의 송이의 맛과 향은 다른 곳에서 모방할 수 없다는 이 점을 살려 1997년부터 매년 9월에 산 송이를 소재로 한 송이축제를 열어 누구든지 희망하면 지정된 송이 산에서 직접 채취해서 5감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에 앞서 참여자들의 안전과 지역민의 소득향상을 꾀함은 물론 세계적 명품 송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악산신령께 기원 제를 올린다.

유래(由來)

예전부터 이 고을 산촌에 전해오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송이가 나는 곳은 자식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희귀한 버섯으로 인간에게는 면역력 강화와 항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세간(世間)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송이는 고가(高價)이면서 생태환경에 민감하고 성장이 까다로운 특성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어서 산주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입산 행위는 금물이다.

송이 축제는 1997년 처음 개최되었다. 이에 따른 산신제 주신을 2018년까지는 해동석성산신(海東石城山神)이라 했고, 2019년부터는 설악산신(雪嶽山神)으로 고쳤다. 이와 같이 주신을 변경한 배경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산천조에 설악은 양양의 진산(鎭山)이라 했고, 『삼국유사』에 설악은 신라 때 처음 소사(小祀)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에 의거(依據)하였다.

지난 2006년도에 '양양송이'는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등록 제1호로 등록하였고. 현재에도 송이는 최고의 정성을 담은 귀중한 선물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신 활력 지역으로 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진행(進行)

헌관급 제집사 이하 구취문외위(獻官及 諸執事以下 俱就門外位).

강신례(降神禮)를 행하다.

참신례(參神禮)를 행하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다.

음복례(飮福禮)를 행하다.

사신례(辭神禮)를 행하다.

위패와 축문

松栮祝祭祝文
維
檀君紀元 四三五一年 歲次戊戌
陽十月十八日 癸未
襄陽郡守 ○○○ 敢昭告于
雪嶽山神 伏以
瑞雲碧流 靑嶽聖神
大川宣化 香茸化橐
享祀是宜 永介多祉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式陳明薦 尙 饗

송이축제축문
유
단군기원 사삼오일년 세차무술
양십월십팔일 계미
양양군수 ○○○ 감소고우
설악산신 복이
서운벽류 청악성신
대천선화 향용화강
형사시의 영개다지
근이 생폐례제 자성서품
식진명천 상 향

송이축제 축문

설악산신이시여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스러운 구름 아래 맑은 벽계수가 흐르는 설악산 성신께서 하늘을 대신하여 조화를 베푸사 향기로운 버섯에 꽃이 활짝 피게 하시니 마땅한 날에 제사를 올리오니 크게 오래도록 많은 복을 내리소서. 이에 삼가 희생과 폐백과 단술과 법대로 진설하여 맑게 천신하오니 높이 흠양하소서.

설악산신제 진설

설악산신제 제례

7

양양연어축제

襄陽鱒魚祝祭

7 양양연어축제(襄陽鰱魚祝祭) – 남대천용왕지신제(南大川龍王之神祭)

■ 개요(概要)

- 주관(主管) : 양양문화재단(襄陽文化財團).
- 장소(場所) : 양양남대천 둔치.
- 주신(主神) : 남대천용왕지신(南大川龍王之神).
- 향사(享祀) : 매년 연어축제일.
- 준비(準備) : 양양문화재단.

■ 의미(意味)

연어는 연어목 연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민물에서 태어나 먼 바다로 나가 3~5년간 성장한 뒤 다시 모천으로 돌아와 산란하는 희귀성 어류다. 한 번 산란하면 부화가 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알의 옆에서 일생을 마친다. 이러한 연어들의 생명력과 경이로운 자연의 섭리를 직접 보고 맨손으로 잡아볼 수 있는 체험 장을 마련하여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행사기간 중 각종사고 예방과 참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해용왕지신제를 봉행하고 있다.

■ 유래(由來)

양양군에서는 1996년 남대천에서 최초로 연어낚시대회를 개최한 다음 1997년부터 축제로 승격시켜 다채로운 행사를 치렀다. 1998년부터는 참여자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 연어를 잡는 체험행사로 변경하자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알려져 외국인도 상당수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본 행사에 앞서 남대천에서 개막행사인 동해용왕제를 지내고 있다.

또한 남대천의 향토어종 보호와 어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양양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남대천 자연산란장 조성과 연어생태 연구 및 관리 동을 조성하고, 2024년부터 추가예산을 확보해 연어박물관을 조성, 지역산업 활성화와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로 거듭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대천용왕제 제례 1

■ 진행(進行)

강신례(降神禮)를 행하다.

참신례(參神禮)를 행하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음복례(飮福禮)를 행한다.

사신례(辭神禮)를 행하다.

■ 축문(祝文)

鰱魚祝祭 祝文
維
檀君紀元 ○○○○年 歲次□□
襄陽郡守 ○○○ 敢昭告于
南大川龍王之神 伏以 百谷之王
德著廣利 佑今此 鰱漁回歸之時
乃此吉辰 郡民祝祭 神其保佑
俾無後艱 亨祀是宜 永介多祉
式陳明薦 尙 饗

연어축제 축문
유
단군기원 ○○○○년 세차□□
양양군수 ○○○ 감소고우
남대천용왕지신 복이 백곡지왕
덕저광리 우금차 연어회귀지시
내차길신 군민축제 신기보우
비무후간 형사시의 영개다지
식진명천 상 향

남대천용왕지신 이시여 엎드려 바라옵건대 백곡의 왕께서 큰 덕이 널리 알려지고 이 땅에 이로움을 넓히시니 이제 연어가 돌아오는 때를 가려 군민이 축제를 펼치오니 신께서 보우하사 두려움이 없이하여 주시도록 바라오며 이에 마땅한 날에 제사를 올리오니 크게 오래도록 많은 복을 내리소서, 이에 삼가 희생과 폐백 단술 여러 제물을 법에 따라 진설하오며 맑게 천신하오니 흠양하소서.

남대천용왕제 제례 2

8

양양군 마을 성황제

동제

8 양양군 마을 성황제(동제)

■ 양양읍 마을 성황제(동제)

▶▷ 감곡리(甘谷里)

- 제당형태 : 큰성황(소나무), 돌머리성황(고목), 방축제성황(100년생 느티나무)을 신목으로 함.
- 제당위치 : 마을 뒤편 위치.
- 제의시기 : 큰 성황에서 마을에 액운이 겹칠 때만 제사를 지냄.
- 제의내용
  - 큰 성황에서만 제사를 지내는데 제관 5명 내외 참석.
  - 생기가 맞는 사람, 여자들도 생기를 맞춤.
  - 밤 10시부터 1시간 내외.
- 기　　타 : 제사일은 공개하지 않고, 제관들만 공유함. 축문이 있음.

▶▷ 거마리(車馬里)

- 제당형태 : 윗말, 아랫말 두 곳 소나무(100년 이상).
- 제당위치 : 윗말은 큰골 입구 화일리간 도로 좌측, 아랫말 성황당은 우무골 입구 거마교 옆.
- 제의시기 : 윗말은 음력 정월달 택일, 아랫말은 음력 정월 초이틀 새벽으로 고정.
- 제의내용
  - 윗말은 거마리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남자 4명 차지 선정.
  - 생기를 맞추고 부정이 없는 사람.
  - 참석자는 주민 가운데 젊은 사람으로 윤번제로 제관 선정.
- 기　　타 : 당집은 있었으나 사라졌음. 예전에는 농악걸립으로 제사를 지냄.

▶▷ 내곡리(奈谷里)

- 제당형태 : 당집 없음. 갓처럼 생긴 수령 200년 정도 소나무가 성황나무임.
- 제당위치 : 앞산 구 철길 위 산 46-1.
- 제의시기 : 정월달 택일, 저녁 7시경 지냄.

- 제의내용
  - 초헌관은 결혼자 중 생기를 맞춤, 아헌은 이장, 종헌은 고령자.
  - 각 세대별로 음복, 가구별로 제사 음식 봉송.
  - 제관이 제수 상차림을 준비함.
- 기　　타 : 마을의 평안과 길상을 위한 성황신을 모신지 백년이 넘었음.

▶▷ 서문리(西門里)

- 제당형태 : 목조 기와집으로 지었고 현판에 성황사(城隍祠)라 씀.
- 제당위치 : 양지말 산 정상.
- 제의시기 : 양양문화제 기간.
- 제의내용 : 양주성(襄州城)을 축성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지낸 것이 효시(嚆矢)이다.
  - 양양성황지신, 매화여성황신.
  - 기관장, 양양문화제 제전위원 중심으로 제관 선정.
  - 홀기에 따라 제의 진행.
  - 국태민안, 풍년기원, 외적의 침입 수호.
- 기　　타 : 고려 목종 때 양주성을 축성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지냈다. 성황제에 앞서 고치물제를 먼저 지내고 나중에 성황제를 지내는데, 고치샘물을 떠다가 제물을 만들고 성황제를 지내고 있음.

▶▷ 송암리(松岩里)

- 제당형태 : 슬레이트 지붕의 벽돌로 지은 당집.
- 제당위치 : 마을 뒤 임 257-8번지.
- 제의시기 : 매년 정월 초 2일과 5일 사이 택일.
- 제의내용 : 성황당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나 예전에는 바위신에게 제를 지냈다.
  - 그 해 생기가 맞는 사람 5명 선출.
  - 축문을 써서 고하고 헌장, 재배, 소지의 순서.
- 기　　타 : 당집은 1960년대 말경에 마을에서 희사금으로 받아서 건립.

▶▷ 연창리(連昌里)

- 제당형태 : 성황당은 슬레이트 벽돌집이며, 주신은 할머니신이다.
- 제당위치 : 뒷말 읍사무소 뒤쪽.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정월 초닷새 날로 정하고 새벽에 지냄.

- 제의내용
  - 제관은 마을리장이 마을위원 5명 내외를 고정적으로 선출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 부정을 막기 위해 성황당집 주위에 금줄을 침.
  - 제수는 돼지고기, 흰 시루떡, 삼시로가, 어물 등.
  - 제사가 끝나면 주민들과 마을 회관에 모여 식사를 한다.

▶▷ 월리(月里)

- 제당형태 : 상수리나무를 성황 목으로 삼음.
- 제당위치 : 마을 뒤 안산 입구.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한식날 택일하여 낮 10시경에 지냄.
- 제의내용 : 마을에 사는 무속인이 제관을 선출하고, 제물을 장만함.
- 기　　타 : 주민들은 정초에 날을 받아 소원을 빌기도 함.

▶▷ 임천리(林泉里)

- 제당형태 : 당집. 목조기와 1칸, 시멘트 벽, 단청, 여닫이문. 신목은 200년 이상의 소나무 이다.
- 제당위치 : 마을 북쪽 석성산 위.
- 제의시기 : 매년 정월 초3일, 음력 3월 3일, 7월 7일, 9월 9일.
- 제의내용
  - 칠성신, 석성신, 산신, 성황신, 석성당 산신제를 먼저 지냄.
  - 참석자는 이장, 제사 주관자 2명, 주민 등 10명 내외.
  - 제사음식으로 백설기, 주과포, 메를 마을회관에서 준비함.
- 기　　타 : 산성과 관련된 제사로 산신, 산성신, 무속신인 칠성신을 모시고 있음.

▶▷ 조산리(造山里)

- 제당형태 : 당집은 없으나 둥글게 석단을 쌓고 중앙부가 파임. 신목은 수령 2백년 정도의 소나무이나 번개를 맞아 고사 된 상태임.
- 제당위치 : 프레아 리조트 앞 육교 쪽에서 북쪽으로 산 정상 산 9-1번지.
- 제의시기 : 매년 1회 음력 정월 초 닷 세날 해가 뜸과 동시에 지냄.
- 제의내용
  - 상당 당상주가 겸하여 제를 주관함.
  - 현재는 동네 고령자 중심으로 10명 정도 참석. 초헌관은 이장이며, 아현관은 노인회장 등이다.

▶▷ 청곡리(青谷里)

- 제당형태 : 벽돌당집 슬레이트 지붕, 양철 문, 사방 2평정도. 제단 내부 도위패에 이사지신위(里社之神位)라고 새겼다.
- 제당위치 : 마을 뒤 군부대 철조망 옆 산 61번지.
- 제의시기 : 음력 정월 15일, 년 1회 오후 7시경.
- 제의내용
  - 제사는 마을 노인회가 주관한다.
  - 제사음식을 가구별로 따로 나누고 음복함.
- 기　　타 : 제사는 6.25 전쟁 이후 안녕을 위해 지내고 있고, 청곡1리는 마을 앞산 신목을 모시고 있으나 전승이 끊기고, 집안마다 우환이 생기면 신목에 찾아가 한지를 매달고 제사를 따로 지내고 있음.

▶▷ 화일리(禾日里)

- 제당형태 : 당집 없음. 신목인 소나무 3그루 주위에 돌무더기 제단을 쌓음.
- 제당위치 : 마을 앞 저수지 고개 길 정상 산 239번지.
- 제의시기 :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3일 사이에 택일하며 새벽 3시경 지냄.
- 제의내용
  - 생기가 맞는 사람 3명 선정 후 제사 일에는 제관이 도가 집에서 지냄
  - 소머리, 명태, 밤, 대추, 곶감, 흰 시루떡 3개, 제주는 3되 3홉으로 성황당 옆에 구덩이를 파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
- 기　　타 : 제주를 만들 때 백미 3되 3홉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성황당 밑에 봉하는데, 알 불 위에 술독을 올려놓고 짚을 돌려 덮은 다음에 다시 묻는다고 함.

■ 서면 마을 성황제(동제)

▶▷ 갈천리(葛川里)

- 제당형태 : 목조 1칸, 지붕은 양철지붕. 신목은 성황당 뒤에 100년이 넘은 소나무가 있다.
- 제당위치 : 구룡령 휴게소 맞은 편.
- 제의시기 : 음력 8월 9일 밤 10시~11시 사이.

- 제의내용
  - 고축관 등 5명 내외의 제관을 선출하나 여자는 참석할 수 없음.
  - 숙성된 술로 제관이 목욕재계한 다음 제사 참가.
  - 일주일 전부터 금기하고 술을 성황당 앞에 묻었다가 씀.
- 기　　타 : 과거 마을에 산삼 캐는 심마니가 많아서 가을에 산삼 캐러 가기 전 제를 지낸다.

▶▷ 공수전리(公須田里)

- 제당형태 : 당집은 없고 신목(神木)만 있음(단풍나무 높이 10m, 둘레 1m).
- 제당위치 : 마을 중간 위치 서북향.
- 제의시기 : 정월 1월 3일 새벽.
- 제의내용
  - 토지지신, 성황지신, 여역지신께 제사를 지낸다.
  - 제관 3명 내외.
  - 목욕재계 후 마을회관에 모여 공동으로 잠을 자고 새벽에 제사를 지냄.
  - 주과포, 돼지머리, 생선.
- 기　　타 : 과거 서낭 신목은 고송이었으나 죽어버렸고, 현재 단풍나무는 봄에 제일 먼저 녹색으로 잎이 핀다고 함.

▶▷ 내현리(內峴里)

- 제당형태 : 시멘트 양철지붕, 가로세로 2m. 신목은 6m 정도의 소나무이다.
- 제당위치 : 마을 중심부 남향.
- 제의시기 : 연 1회 음력 3월 중 택일하고 저녁 해질녘에 성황 지신께 제사를 지냄.
- 제의내용
  - 고령자 중 삼헌관 선정.
  - 성황당에는 남자들만 5명 내외가 올라감.
  - 돼지머리, 주과포 등.
- 기　　타 : 마을에서 1994년 제당을 짓고 안녕을 기원함.

▶▷ 논화리(論化里)

- 제당형태 : 슬레이트 지붕에 벽돌로 지음.
- 제당위치 : 마을 중앙 산속의 남향.
- 제의시기 : 음력 정월 초하루나 이틀 새벽 1시경.

- 제의내용
  - 신상에 부적합이 없는 마을 주민을 3헌관으로 선출.
  - 마을 고령자 4명 내외가 제사 참석.
- 기　　타 : 새마을 운동 때 철거하였으나 마을에 우환이 생겨 다시 성황당 지음.

▶▷ 범부리(凡阜里)

- 제당형태 : 성황당 터만 남아 있다. 돌담만 치고 신목으로 소나무가 있음.
- 제당위치 : 마을 서쪽 송림 가운데 동향.
- 제의시기 : 음력 정월 초순경에 택일하고 새벽 4시경 지냄.
- 제의내용
  - 이장, 주민 40대 이상 3명.
  - 제신은 성황신, 산신, 천지신.
- 기　　타 : 현재는 주민들이 외지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음.

▶▷ 상평리(上坪里)

- 제당형태 : 아카시아 고목.
- 제당위치 : 상평리 교회 옆.
- 제의시기 : 음력 정월 16일 새벽 2~3시경.
- 제의내용
  - 마을의 고령자 중 3헌관 선출.
  - 최고령자 순서로 초헌을 올리고 배례 후 소지함.

▶▷ 서림리(西林里)

- 제당형태 : 슬레이트 지붕으로 야트막하게 돌담을 쌓음.
- 제당위치 : 마을 뒷산.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8월 택일.
- 제의내용
  - 산신.
  - 마을 고령자 가운데 생기를 맞추어 선출함.
  - 메 1그릇, 돼지머리, 주과포, 삼실과, 나물, 삼탕 등.
- 기　　타 : 심마니들이 입산을 하기 전에 산신께 치성을 올려야 무사하다는 전설이 있다. 서림 4리에는 미륵당이 길 옆에 있는데 추씨, 양씨 등이 음력 3월 3일, 9월 9일 제사를 미륵상에 올리고 있다.

▶▷ 서선리(西仙里)

- 제당형태 : 시멘트로 지은 당집과 소나무 신목.
- 제당위치 : 마을 서쪽 들판.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정월 5일 이내 새벽 2시부터 2시간.
- 제의내용
  - 이장, 반장이 제관의 순서를 정한다.
  - 40대 이상 주민이 전원 참석.
  - 소지를 각각 호구 수대로 올려 줌.

▶▷ 송천리(松川里)

- 제당형태 : 엄나무 신목(높이 10m, 둘레 1m).
- 제당위치 : 마을 중간 지점 가장 높은 곳.
- 제의시기 : 매년 정월 중 택일하고 시간은 밤 12시부터 지냄.
- 제의내용
  - 성황신, 산신.
  - 제관은 마을 주민 가운데 생기가 맞는 사람으로 골라서 선출.
  - 제관은 3일 전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사 전날은 마을회관에서 잠을 잠.
  - 3일 전에 술을 담그고 소를 잡을 때도 있음.
- 기　　타 : 새마을운동 시기 미신타파로 제를 중단했으나 각종 우환이 생겨서 70년대 후반부터 제의를 다시 시작함.

▶▷ 수리(水里)

- 제당형태 : 시멘트 당집, 신목.
- 제당위치 : 마을 동쪽 다리 건너 논밭의 중앙.
- 제의시기 : 음력 10월 달 택일.
- 제의내용
  - 성황신, 토지신.
  - 최고 연장자가 제관을 맡음.
  - 연장자가 소지를 올리고 다음은 이장, 반장, 개발위원 순서.
  - 음식을 먹고 모든 가구가 똑같이 나눔.
- 기　　타 : 과거 오대산 일대에 불이 났을 때 마을 주민들이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지내자 불길이 잡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내려옴.

▶▷ 수상리(水上里)

- 제당형태 : 작은 시멘트 당집, 수령 100년 정도의 소나무 고사목을 신목으로 함.
- 제당위치 : 학교 건물 뒤.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1월 3일 저녁.
- 제의내용
  - 당 신목.
  - 이장이 주관하여 헌관을 선출함.
  - 참석자는 마을 거주자 가운데 고령자 5명 내외.
  - 주과포, 메, 떡.
- 기　타 : 제례를 지낸지 200년이 넘었는데 그 덕인지 마을이 무탈하다고 함.

▶▷ 용천리(龍泉里)

- 제당형태 : 소나무 천택지신. 신목, 수령 100년 정도.
- 제당위치 : 마을 동쪽 냇가 옆 논밭 중앙.
- 제의시기 :음력 1월 3일 또는 1월 8일.
- 제의내용
  - 서낭신, 토지신, 삼신 할매.
  - 헌관은 3명이며 참석자는 30여명 정도.
  - 모두 모여 음복을 함.

▶▷ 장승리1반 (長承里1班)

- 제당형태 :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당집과 소나무 신목.
- 제당위치 : 마을 입구 앞산의 남향.
- 제의시기 : 음력 정월 3일 자정.
- 제의내용
  - 제관 10명 내외로 마을에서 윤번제로 선정.
  - 제사 후 제물을 가정별로 분배함.
- 기　타 : 새마을운동 시절 성황당을 철거하였으나 마을에 우환이 생겨 다시 성황당을 지음.

▶▷ 장승리3반(長承里3班)

- 제당형태 : 양철 집 1칸.
- 제당위치 : 장승리 뒷산 남향.
- 제의시기 : 음력 정월, 무속인이 택일.
- 제의내용
  - 제관은 3명 내외이며 무속인이 주로 와서 기도함.
  - 무속인이 소원을 빌어준다.

▶▷ 황이리(黃耳里)

- 제당형태 : 신목.
- 제당위치 : 마을 중심.
- 제의시기 : 음력 12월 20일전 택일, 정월 3일 안에 무속인에게 택일 의뢰.
- 제의내용
  - 제주는 부정을 타지 않고 부부 금슬이 좋으며 가정이 행복한 사람 선출.
  - 무속인이 소원을 빌어줌.
  - 자반, 메, 과일, 돼지머리를 쓰고 닭과 달걀을 피함.
- 기　　타 : 황이리에 제당이 없고 신목만 있으나 갈천리에서 주관하고 대부분 갈천리 당집에 가서 제를 올리고 있다.

■ 손양면 마을 성황제(동제)

▶▷ 가평리(柯坪里)

- 제당형태 : 소나무 신목 양쪽으로 금줄을 걸고 한지와 실을 걸었다. 당집터(가로 5m, 세로 3m 직사각형) 자리가 남아 있음.
- 제당위치 : 마을 입구에서 200m 들어가 서쪽 산중턱.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정월달에 택일, 오후 5시 30분경 지냄.
- 제의내용
  - 사방지신과 중앙황제지신께 제사를 지낸다.
  - 3명의 제관과 집사 등 5명 선발.
  - 그 해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제수를 바치고 술은 직접 빚음.
  - 제수로 사용하는 육고기는 반드시 수퇘지를 장만.

• 기　타 : 한국전쟁 중 당집은 붕괴 되었지만 수천 년 내려오는 마을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간리(間里)

• 제당형태 : 소나무(200년 수령).
• 제당위치 : 바람불이 고개.
• 제의시기 : 음력 정월 보름 전 택일.
• 제의내용 : 과거에는 공동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개인별 치성.

▶▷ 남양리(南陽里) 부소치마을

• 제당형태 : 바위 괴석.
• 제당위치 : 마을 입구 앞 강변.
• 제의시기 : 정월 중 택일, 일몰 후에 지냄.
• 제의내용
  – 천신
  – 동네 전체에서 공동의 제사 지냄.
  – 삼헌관이 기제사와 같은 방식.
  – 어물, 삼실과, 메3그릇, 북어.
• 기　타 : 마을 앞 강가 넓은 바위에서 1년에 한번 '告天祭(고천제)'를 지냄.

▶▷ 남양리(南陽里)

• 제당형태 : 소나무(수령 100년 이상).
• 제당위치 : 마을 입구 북동쪽 산 중.
• 제의시기 : 정월달 택일, 저녁 일몰시.
• 제의내용
  – 가정에서 한명씩 나와서 제사 지낸 후 집으로 돌아가 다시 지냄.
  – 주민 공동제는 고천제에 참가함.
• 기　타 : 과거 성황당을 3번 옮겼는데 노거목이 쓰러지고 다시 마을 100년 정도 된 소나무를 신목으로 모심.

▶▷ 동호리(銅湖里)

• 제당형태 : 목조 슬레이트 지붕 와가 당집, 2평 남짓, 여닫이문.

양양군 마을 성황제 (동제)

- 제당위치 : 동호리 3반 마을 서쪽 동산 동향.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11월 丁자가 들어가는 날, 즉 초정일 등을 택함.
- 제의내용
  - 제주와 도가를 선정하면 일주일 동안 주민들은 제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주 집에 가지 못함.
  - 기존의 제사와 동일하게 진행.
- 기　타 : 성황당은 3반 마을에만 있음. 장군바위에는 개인적으로 수시로 기원하는 제를 지냄. 성황신 화상은 중앙에 노인이 앉아있는 모습과 좌우 동자 2명을 민화 풍으로 그렸음.

▶▷ 상왕도리(上旺道里)

- 제당형태 : 소나무 200년 추정.
- 제당위치 : 영간재.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정월 15일전 택일.
- 제의내용 : 개별적으로 함.

▶▷ 상운리(祥雲里)

- 제당형태 : 200년이 넘은 소나무를 신목으로 모신다.
- 제당위치 : 마을 뒷산 소나무 숲.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11월 초정일 자정.
- 제의내용
  - 마을 제사로 제관 선정.
  - 초상 당하거나 부정한 사람을 피하고 그해 운이 좋은 사람 3명 선정.
  - 주민들 음복 후 마을일 논의.
- 기　타 : 과거 성황님이 영험하여 관고개를 넘어 다닐 때 이곳에서 하마를 하지 않으면 말굽이 당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음.

▶▷ 송전리(松田里)

- 제당형태 : 130년생 벚나무.
- 제당위치 : 서낭재.
- 제의시기 : 정월과 동짓달 춘추로 지냄, 시간은 저녁 어둑한 20시경.
- 제의내용
  - 제관 3명이 참석함.

– 3일전 금줄 재계하고 일반 제례의식으로 진행.

▶▷ 송현리(松峴里)

- 제당형태 : 신목.
- 제당위치 : 마을 입구.
- 제의시기 : 음력 정초 설날에 택일, 자정 이후에 제사 지냄.
- 제의내용
  – 이장을 중심으로 생기가 맞는 여러 사람을 윤번으로 선정함.
  – 삼헌관, 도가 등 제관만 참석.
  – 주과포, 떡, 메.
- 기　타 : 마을 전체가 참여하여 성황제를 지냄.

▶▷ 수산리(水山里)

- 제당형태 : 목조 와가형 슬레이트 지붕, 2평 남짓 규모의 여닫이 철문.
- 제당위치 : 마을 서쪽 동산 동향.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10월 1일 오후. 성황신과 용왕신께 제사를 지낸다.
- 제의내용
  – 제주관자 1명, 제관 2명과 여성 5명 선발. 제관 집에서 제물을 만드는 도가를 겸하고 일주일간 제주와 제관 집의 출입을 금함.
  – 여 성황신이므로 한복 입은 여성이 참석하고 비는 사람을 불러옴.
  – 수협장, 면장, 주민 등 두루마기 입고 참석.
  – 여성들도 뒤에서 여타 참석자와 합동 배례함.
- 기　타 : 수산리는 수산업에 종사하므로 해난사고가 없도록 기원제를 지내며, 바다 여 성황신을 모시고 있어 나이 많은 여성들이 참석한다. 화상은 남 성황신 모습임.

▶▷ 수여리(水餘里)

- 제당형태 : 신목(神木) 높이 9m, 둘레 2.5m.
- 제당위치 : 마을 입구 동쪽.
- 제의시기 : 음력 정월 10일 이내 해질 무렵.
- 제의내용
  – 마을에서 5명 내외 공동으로 지내고 가정에서 와서 따로 지냄.
  – 15일 전부터 심신을 정결하게 유지함.

- 기　타 : 오랫동안 마을에서 성황제를 토착 신앙으로 유지하여 왔음.

▶▷ 여운포리(如雲浦里)

- 제당형태 : 소나무 10m 이상 고목.
- 제당위치 : 국도 남쪽 공항휴게소 맞은 편.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초정일 자정 무렵.
- 제의내용
  - 성황지신께 제사를 지낸다.
  - 당 해년의 부정 없고 생기 맞는 남자로 제관 3명, 집사 등 5명 참석.
  - 과거 인근 하수리에서 박수가 고축을 하고 소지를 올렸다고 함.
  - 제사 3일 전 금줄을 치고 당에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항아리를 파묻고 제주(祭酒)를 담금.

▶▷ 오산리(鰲山里)

- 제당형태 : 조립식건물 파란색 지붕, 전면의 소나무, 측면의 구룡나무를 신목으로 모심.
- 제당위치 : 마을 동쪽 야산.
- 제의시기 : 연 3회. 음력 정월 15일, 5월 단오, 9월 9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 제의내용
  - 성황지신과 용왕지신께 제사를 지낸다.
  - 이장이 주관하여 부정이 없는 주민 5명 내외를 제관으로 선정.
  - 음력 9월 9일에는 수소 한 마리를 잡아 제사 지냄.
  - 제사 지낼 제물을 장만하는 도가 집은 부정이 없는 깨끗한 집 선정.

▶▷ 와리(瓦里)

- 제당형태 : 소나무 높이 10m, 둘레 1m 정도.
- 제당위치 : 마을 서북산성.
- 제의시기 : 개인별로 택일하여 지내고 시간은 일몰 후.
- 제의내용
  - 제관은 3명 내외 가정에서 개인별로 참석.
  - 초상이나 인명피해가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서낭당 주위에 황토를 담아 집 입구에 뿌리고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 처마에 꽂아놓음.
- 기　타 : 마을 성황제는 이장 댁과 이웃 한 가정만 제사를 지내고 있음

▶▷ 우암리(牛岩里)

- 제당형태 : 신목 소나무 100년 추정.
- 제당위치 : 서낭재.
- 제의시기 : 개인별로 택일.
- 제의내용 : 치성.
- 기　　타 : 개별 치성함.

▶▷ 주리(舟里)

- 제당형태 : 소나무 높이 8m, 둘레 2m 내외.
- 제당위치 : 마을 동쪽.
- 제의시기 : 음력 정월 10일 새벽 1시경.
- 제의내용
  – 제관 3명 집사 포함 5명 내외의 제관 선출, 여성은 제사에 참석 못함.
  – 제관은 제사 당일 초저녁부터 제물 만드는 집에서 한방에 합숙하며 부정을 막음.
- 기　타 : 과거에는 남 성황신이 있었는데 현재는 여 성황신만 믿고 있음.

▶▷ 하왕도리(下旺道里)

- 제당형태 : 소나무 수령 200년 추정.
- 제당위치 : 서낭재.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8월 10일 전 택일.
- 제의내용 : 일반 제례의 형태로 지냄.

▶▷ 학포리(鶴浦里)

- 제당형태 : 소나무 3그루 수령 60년 정도. 높이 10 m, 둘레 30cm.
- 제당위치 : 마을 서쪽 회관 뒷산 중턱.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2월경 택일, 저녁 7시경.
- 제의내용
  – 이장 주민 등 10여명 참가.
  – 소나무 신목 앞 작은 나뭇가지에 성황지신, 여역지신, 오방지신위라고 한자로 쓴 지방을 붙여서 세워놓고 잔을 올린 다음 절을 하고 고축하며 소지를 올림.
- 기　타 : 과거 공산치하 때 중단되었다가 수복 후부터 100년 정도 된 가옥에서 지내고 있는 박의동씨 선조 때도 지냈음.

현북면 마을 성황제(동제)

▶▷ 기사문리(基士門里)

- 제당형태 : 시멘트 건물 1칸 8평 정도, 창문 2개.
- 제당위치 : 해안초소 뒤편 동산 위.
- 제의시기 : 음력 9월 초정일 매년 1회.
- 제의내용
  - 이장, 반장 중심으로 30대 이상 부정 없는 사람 선정.
  - 성황치성 후 용왕치성을 올림, 순서는 일반 제사와 동일.
  - 소머리와 4족, 주과포, 메, 떡 등.
- 기　타 : 제사 지내기 전 당 입구에 금줄을 걸어 부정을 금함.

▶▷ 대치리(大峙里)

- 제당형태 : 신목으로 느티나무, 엄나무, 소나무 2그루.
- 제당위치 : 뒷말 주민의 임야에 위치.
- 제의시기 : 매년 정월 초정일.
- 제의내용
  - 제관은 이장과 생기 맞는 노인 선정.
  - 최고령자 순으로 3헌관 헌작 후 소지.
  - 축문은 성황지신. 사직지신. 여역지신에게 마을의 발전과 풍농 그리고 주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

▶▷ 말곡리(末谷里)

- 제당형태 : 소나무 550년 수령(높이 25m, 둘레 4.6m).
- 제당위치 : 마을 입구.
- 제의시기 : 현재는 지내지 않고 있음.
- 제의내용
  - 부정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면서 10명 내외로 제관 선정.
  - 도가를 정한 후 제관과 도가는 부정을 금함.
- 기　타 : 샘재산 중턱에도 성황목이 있었으나 일제시대에 베어졌는데, 제관집에서 외아들이 죽은 이후 마을 제사는 지내지 않고 있음.

▶▷ 면옥치리(綿玉峙里)

- 제당형태 : 당집. 1m 정도 높이의 작은 제당. 신목은 소나무 이다.
- 제당위치 : 면옥치리 3반.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
- 제의내용
  - 마을주민으로 제관 5명 내외 선정.
  - 제사일 5일 전에 제당에 금줄을 치고 부정한 사람은 출입을 금함.
  - 메, 삼탕, 과일, 어물, 떡, 술.
- 기　　타 : 제당에는 3분의 신을 모시는데 전해오는 이야기에의하면 한분의 남당신에 여당신이 두명이라고 한다.

▶▷ 명지리(明池里)

- 제당형태 : 신목 엄나무.
- 제당위치 : 옹기점말 천변 둔덕.
- 제의시기 : 매년 정월 초정일.
- 제의내용
  - 일반적인 제사 제수 물품 준비.
  - 마을경비로 상차림 비용을 활용.

▶▷ 법수치리(法水峙里)

- 제당형태 : 당집. 목조 와가 1칸.
- 제당위치 : 현성초등학교 법수치 분교 뒤.
- 제의시기 : 한해 2번 음력 정월과 8월 초정일, 아침 6시경 1시간 소요.
- 제의내용
  - 제관은 10명 내외이며 이장 중심으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로 결정.
  - 보통의 제사와 유사하며 개인이 준비한 소지만 올리고 고축은 하지 않음.
- 기　　타 :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은 없고 평상복으로 입음.

▶▷ 상광정리(上光丁里)

- 제당형태 : 당집. 목조 와가 1칸.
- 제당위치 : 현성초등학교 법수치 분교 뒤.
- 제의시기 : 한해 2번 음력 정월과 8월 초정일, 아침 6시경 1시간 소요.

- 제의내용
  - 제관은 10명 내외이며 이장 중심으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로 결정.
  - 보통의 제사와 유사하며 개인이 준비한 소지만 올리고 고축은 하지 않음.
- 기　　타 :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은 없고 평상복으로 입음.

▶▷ 어성전리(漁城田里)

- 제당형태 : 소나무 5m, 둘레 30cm.
- 제당위치 : 어성전 1, 2리 마을 안쪽.
- 제의시기 : 1리는 정월 초정일, 2리는 8월 초정일 아침 9시경, 20분 정도 소요.
- 제의내용
  - 성황신과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 마을이장이 연장자에게 제관을 맡김.
  - 10일 전 제주 봉함.
  - 1리는 소고기 정육과 백설기, 2리는 여신이어서 암소머리를 씀.
- 기　　타 : 어성전은 한 동리였으나 해방 직후 부락이 커져서 1,2리로 나누어 마을 제사를 지내고 있음.

▶▷ 원일전리(元日田里)

- 제당형태 : 괴목 고사목으로 높이 12m, 둘레 30cm.
- 제당위치 : 원일전리 음촌 북쪽 강변.
- 제의시기 : 매년 1회 음력 9월이나 10월 중 택일.
- 제의내용
  - 제관, 헌관, 집사 등 5명 내외.
  - 마을이장이 연장자에게 제관을 맡김.
  - 강물에 목욕재계 후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임산부는 타 지역으로 나가게 함.

▶▷ 잔교리(棧橋里)

- 제당형태 : 소나무 수령 100년생 7, 8그루.
- 제당위치 : 마을 중간.
- 제의시기 : 일정하지 않음.
- 제의내용 : 가환이 있는 가정에서만 지냄.

▶▷ 중광정리(中光丁里)

- 제당형태 : 당집은 없으며 마을 뒤 골말의 산봉우리에 당목인 소나무를 신목으로 모셨으나 해방 후 벌목으로 없어졌다.
- 제당위치 : 최근 마을회관 뒷산에 있는 큰 소나무를 신목으로 정하고 있다.
- 제의시기 : 마을에서 서낭제는 지내지 않고 있으나 신목인 소나무에 금줄 등을 치고 무속인 또는 나이가 드신 주민들 일부가 개인적인 소원을 빌고 있다.

▶▷ 하광정리(下光丁里)

- 제당형태 : 하조대 정자각을 이용한다.
- 제의시기 : 매년 1월 1일 해가 뜨는 일출 때 바다를 향하여 용왕제를 지낸다.
- 제의내용 :
  - 제사의식은 마을 이장이 주관하며 노인회장과 마을 유지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무사 안녕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올린다.
  - 제물은 삼 실과 주 과 포, 돼지머리, 어물, 떡 등을 준비하고 제향 의식이 끝나면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장만한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
- 기　　타 : 매년 1월 1일 지내는 제향 의식인 용왕제는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마을 정관에 명시하였다.

■ 현남면 마을 성황제(동제)

▶▷ 견불리(見佛里)

- 제당형태 : 당집은 1837년에 건립하였으나 최근 목조 기와지붕으로 다시 지음.
- 제당위치 : 마을 가운데 위치하며 그 옆에 당목인 소나무와 참나무가 있다.
- 제의시기 : 예전에는 동짓달에 제향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 중단되었다가 2003년경에 복원하면서 정월 대보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 제의내용
  - 제사의식은 이장이 주관하며 초헌관은 노인회장이며 2006년부터 축문을 고하며 제를 지내고 있다.
  - 제물은 돼지머리, 어물, 과일, 포, 탕, 나물, 두부, 백설기, 술 등으로 제향 의식이 끝나면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아침을 먹는다.

▶▷ 광진리(廣津里)

- 제당형태 : 시멘트 외형, 슬레이트지붕, 함석문 1칸. 신목으로 소나무를 모신다.
- 제당위치 : 마을 동쪽 해안 군부대 경비지역 큰 바위 앞.
- 제의시기 : 한 해 2번, 음력 1월과 가을에 택일.
- 제의내용
  - 어촌계장, 반장 등 부정 없는 사람 중에 선출.
  - 남녀노소 동네 사람 모두 참석.
- 기　　타 : 무속인을 불러 3년 마다 풍어제 굿을 거르지 않고 있음.

▶▷ 남애1리(南涯一里)

- 제당형태 : 1칸, 슬레이트 지붕.
- 제당위치 : 2, 3, 4리 합동 당제사, 바다 쪽 야산 정상.
- 제의시기 : 음력 3월 3일, 9월 9일 오전 10시.
- 제의내용
  - 제신(삼신, 성황신, 부처).
  - 제관은 당산주가 겸함, 각 리에서 책임지고 돌아가면서 지냄.
  - 여자는 오지 못함.
  - 제의순서는 상당, 삼신당, 별신굿으로 한다.
  - 주과포, 떡, 메, 제주는 일주일전 서낭당 앞을 파서 봉했다가 꺼내 쓰고, 어류는 어장에서 쓸 고기를 사용함. 고사목의 일부를 잘라서 고기를 굽고 메를 지음.
- 기　　타 : 5년마다 풍어 굿을 지내는데, 1리에서는 암, 수 서낭이 있음.

▶▷ 남애 2리(南涯二里)

- 제당형태 : 목조 1칸.
- 제당위치 : 남애 산 1번지.
- 제의시기 : 봄 – 음력 3월 삼신 낮 12시, 가을 – 음력 9월 9일 낮 12시.
- 제의내용
  - 제관은 부정이 없고 생기가 맞는 사람으로 정함.
  - 제사 3일 전에는 제주를 봉하고 금기함.
- 기　　타 : 마을 수호 및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5년마다 풍어제를 거대하게 지냄.

▶▷ 동산리(銅山里)

- 제당형태 : 슬레이트지붕 벽돌집 약 5평 내외. 당집위에 소나무를 신목으로 모신다.
- 제당위치 : 마을 뒤편 언덕 중간.
- 제의시기 : 음력 정월 보름이전, 8월 첫정일 택일하여 아침부터 지냄.
- 제의내용
  - 여 성황신.
  - 주민 10명 내외로 제관 선출.
  - 봄에는 이장, 가을은 어촌계장이 제관선출.

▶▷ 북분리(北盆里)

- 제당형태 : 신목으로 소나무와 상수리계통이 있음.
- 제당위치 : 마을 뒷산 중턱 각시골과 마을 초입 언덕 2군데.
- 제의시기 : 정월 초정일.
- 제의내용
  - 토지지신, 성황지신, 여역지신께 제를 지낸다..
  - 총관은 마을 이장이 중심되어 5명 내외의 제관을 선출함.
  - 과거에는 소를 한 마리 통째로 제사상에 올렸다고 함.
- 기　타 : 두 군데 성황당이 있는데 선녀골에 있는 신목은 상수리계통, 마을 초입의 성황 신목은 소나무 군락임.

▶▷ 상월천리(上月川里)

- 제당형태 : 목조 제당. 신목으로 소나무가 있으며, 둘레가 3m 정도의 돌무더기 제단도 있다.
- 제당위치 : 마을 앞산.
- 제의시기 : 봄 – 음력 초정일. 가을 – 8월 초정일.
- 제의내용
  - 성황신(남1, 여2)
  - 초헌 도가, 아헌 이장, 종헌 유지.
  - 봄에는 음복을 도가에서, 가을에는 성황당에서 함.
  - 봄에는 닭과 주과를 가을에는 소머리와 주과를 준비함.

▶▷ 인구1리(仁邱一里)

- 제당형태 : 벽돌집 슬레이트 붉은 색 지붕 나무문, 1칸.
  신목으로 10m 정도의 벚나무 고목을 모신다.
- 제당위치 : 마을 동쪽 죽도정 기슭에 남향으로 위치함.
- 제의시기 : 음력 3월 3일, 9월 9일 새벽 1시경.
- 제의내용
  – 성황지신, 토지지신, 오방지신께 제사를 지낸다.
  – 제관 10여 명으로 이장이 어촌계장, 반장 중심으로 선출.
  – 참석자는 이장, 어촌계장, 각 반장, 주민, 30대 이상 남자.
  – 제수는 어촌계와 비슷하나 돼지머리, 삼색실과, 3되 3홉으로 시루떡 만들어 바침.
- 기　타 : 한 해 동안 배타는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내고 주민 모두 평안하도록 봄가을에 성황신에게 빔.

▶▷ 인구2리(仁邱二里)

〈고청터〉
- 제당형태 : 당집은 없고 시멘트로 1.5m 정도 네모나게 주변을 막고 제단을 만듬.
  소나무를 신목으로 모신다.
- 제당위치 : 마을 복판 공터 남향.
- 제의시기 : 매년 가을 택일.
- 제의내용
  – 마을의 여러 신을 기원하는 고천제는 토지신대감, 성황신대감, 별성지신대감, 시기지신대감, 우혁지신대감 등.
  – 여자를 제외하고 부정 타지 않는 사람으로 제관 선출.
- 기　타 : 마을 복판 공터 남향에 있는 제당은 고청터라고 해서 고청제를 지냈음.
  예전에는 높이 10cm, 15cm의 철마상 2기가 마을의 수호신으로 있었다고 함.

〈성황당〉
- 제당형태 : 당집은 없고 시멘트로 1.5m 정도 네모나게 주변을 막고 제단을 만듬.
  소나무를 신목으로 모신다.
- 제당위치 : 마을 북쪽 뒷산 정상의 남향.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정초에 택일하여 지냄.
- 제의내용
  – 성황신.
  – 여자를 제외한 부정 타지 않은 남자 10명 내외를 제관으로 선출.

• 기　타 : 예전은 성황당 주변에 소나무 고목이 많았으나 지금은 고사한 상태임.

▶▷ 임호정리(臨湖亭里)

• 제당형태 : 소나무 200년(둘레 2m50cm).
• 제당위치 : 마을주민 김창기 씨 집 앞산.
• 제의시기 : 음력 동짓달 첫정일 새벽 5시.
• 제의내용
  – 여성황신.
  –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이장이 제관을 지목함.
  – 6일 전부터 금기. 성황당에 제주를 봉함.
  – 초헌 이장, 유지 배례 후 소지. 농축산업에 대한 소지.

▶▷ 입암리(笠岩里)

• 제당형태 : 높이 1.5m 정도의 시멘트 블록으로 네모나게 담을 쌓음. 신목으로 노송 2그루를 모신다.
• 제당위치 : 마을 아래쪽 보건소 근처 30m.
• 제의시기 :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룻날 아침 6시경.
• 제의내용
  – 성황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께 제사를 지낸다.
  – 이장이 당주가 됨.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순번제로 정함.
  – 이장과 40대 이상 주민 참석.
• 기　타 : 제당은 도로 옆에 있으며 철망을 쳐놓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편임.

▶▷ 전포매리(前浦梅里)

• 제당형태 : 소나무를 신목으로 모신다..
• 제당위치 : 정상철의 집 옆산.
• 제의시기 : 음력 11월정일 밤 8시.
• 제의내용
  – 부정 없는 집으로 제관을 선출.
  – 남자 위주로 제물 장만.
  – 고령자 순위로 초헌을 올리고 재배 후 소지.

▶▷ 죽정자리(竹亭子里)

- 제당형태 : 돌담을 30cm 정도로 둥글게 쌓음. 신목으로 높이 15m, 둘레 5m 정도의 소나무 4그루를 모신다.
- 제당위치 : 죽리마을 내 중앙, 죽정자리에서 남쪽.
- 제의시기 : 봄과 가을로 택일하여 오후 7시경 지냄.
- 제의내용
  - 성황신, 토지신, 여역신.
  - 이장 및 제관 3명, 도가 2명.
  - 봄에는 주과포, 닭, 명태, 가을에는 주과포, 소고기, 메, 떡 등.
- 기　타 : 마을 제사를 위해 위토를 장만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죽리(竹里)

- 제당형태 : 죽리 – 소나무, 느티나무. 정자리4~6반 – 소나무(수령 500년).
- 제당위치 : 죽리 회관 아래 정자리4~5반 이영길 집 앞. 정자리 6반 김진완 집 뒤.
- 제의시기 : 봄 – 음력 정축일(1월). 가을 – 10월 정축일 밤 8시.
- 제의내용
  - 토지지신, 성황신, 면역신.
  - 부정이 없는 사람 3인 선출.
  - 3일전부터 금기, 제주도 봉함.
  - 봄에는 닭(황), 가을에는 소고기, 메, 편, 주과 포.

▶▷ 지경리(地境里)

- 제당형태 : 소나무(수령 80년).
- 제당위치 : 바루봉.
- 제의시기 : 음력 3월 중순 새벽 3시.
- 제의내용
  - 성황신.
  -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
  - 고령자 헌관 도가, 아현 이장 소지.

▶▷ 하월천리(下月川里)

- 제당형태 : 블록 제당, 신목은 참나무이다.

- 제당위치 : 학교 앞산.
- 제의시기 : 음력 10월 정일 저녁 5시경.
- 제의내용
  - 성황신(여).
  - 부정이 없는 도가집 선정.
  - 3일전부터 금기를 함.

▶▷ 후포매리(後浦梅里)

- 제당형태 : 소나무.
- 제당위치 : 후포매 조병균의 집 뒷산.
- 제의시기 : 음력 11월 정일 밤 8시.
- 제의내용
  - 부정 없는 집으로 제관을 선출.
  - 남자 위주로 제물장만.
  - 고령자 순위로 초헌을 올리고 재배 후 소지.

■ 강현면 마을 성황제(동제)

▶▷ 간곡리(間谷里)

- 제당형태 : 당집은 없으나 신목이 있고 돌담을 둘러 침.
- 제당위치 : 마을 이장 댁 뒤 북서쪽 언덕.
- 제의시기 : 매년 좋은 날 택일, 주로 해 뜰 무렵.
- 제의내용
  - 마을 이장이 생기를 맞추어 선정.
  - 택일을 하면 3일전에 미리 제당에 가서 청소함.
  - 제관 및 이장이 가정 제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 강선리(降仙里) 1

- 제당형태 : 당집은 없으며, 신목으로 소나무 3그루(높이 21m, 둘레 2m 정도).
- 제당위치 : 마을 뒤 북쪽 산정 길 옆.
- 제의시기 : 음력 11월 2일, 1년에 1회.

- 제의내용
  - 누구나 제사에 참여하며 제관은 마을리장이 초헌관을 하고 노인회장이 아헌관의 순으로 한다.
  - 누구나 참석 가능하나 부정한 사람은 피함.
  - 제사 후 음복을 하고 동네 회의를 함.

▶▷ 강선리(降仙里) 2

- 제당형태 : 당집은 없음.
- 제당위치 : 서북 방향 산중턱.
- 제의시기 : 음 11월 2일 미시.
- 제의내용
  - 대동성황신.
  - 누구나 제사에 참여하며 제관은 마을 이장이 주관하며, 주로 마을의 연장자가 됨.
  - 누구나 참석 가능하나 부정한 사람은 피함.
  - 제물은 소머리, 4족, 꼬리, 간, 주과포, 시루떡.
- 기　타 : 지방은 '대동성황지신위.'

▶▷ 광석리(廣石里)

본 동 뒷산에 성황봉이 있으며 산 정상에 큰 소나무만 서 있으며 현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 과거에 괴질병인 콜레라가 돌아 주민이 전부 앓았지만 이 마을의 안씨집 노인이 현몽을 하여 마을 상단의 북쪽에 3 개의 소나무에 제사를 지내면 없어진다고 해서 제를 지낸 다음 완치되었다고 한다.

▶▷ 금풍리(金風里)

- 제당형태 : 당집은 없으며 당목은 소나무를 신목으로 모신다.
- 제당위치 : 마을 뒷산의 소나무.
- 제의시기 : 일제강점기까지는 제사를 지내다가 해방 후 중단되었으며, 30여 년 전에 마을 젊은이들이 이유 없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다시 서낭제를 지내다가 최근 그마저도 중단되었음.

▶▷ 답리(畓里)

- 제당형태 : 시멘트 당집 1칸, 슬레이트 지붕, 함석문.
- 제당위치 : 마을 뒷산 소나무 숲

- 제의시기 : 음력 1월 5일 택일.
- 제의내용
  –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3분으로 제관 선정.
  – 참석자는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출하여 초헌, 아헌, 종헌, 집사, 도가를 정함.
- 기　타 : 제사를 올리지 않으면 인재와 재물 손실이 있어서 매년 지냄.

▶▷ 둔전리(屯田里) 1

- 제당형태 : 두 갈래로 갈라진 소나무 신목(100년 된 소나무 높이 15m, 둘레 1.5m)이며 돌로 제단을 쌓았음.
- 제당위치 : 마을 남쪽에 위치.
- 제의시기 : 마을 단위로 하지 않고 가정 단위로 행함.
- 제의내용 : 마을 단위로 하지 않고 가정마다 따로 준비함.
- 기　타 : 예전에는 신목 아래에서 굿을 자주했음.

▶▷ 둔전리(屯田里) 2

- 제당형태 : 천년 넘은 굴참나무 아래 돌무더기 제단 설치.
- 제당위치 : 마을 굴참나무.
- 제의시기 : 정월 초정일에 행함.
- 제의내용
  – 이장 외 3명 내외가 참석
  – 제수는 돼지머리와 주과포, 가구마다 소재 올림.
- 기　타 : 과거에는 4월 9일 제사 지냈는데, 지방은 성황지신신위라 하였음.

▶▷ 물갑리(勿甲里)

- 제당형태 : 신목(神木)은 상수리나무(높이 15m, 둘레 3m), 돌 제단을 쌓고 신목에 한지를 매달았음.
- 제당위치 : 마을 남쪽 산꼭대기.
- 제의시기 : 추수가 끝나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 제의내용 : 예전에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지냈으나 현재는 자리만 있고 마을 공동의 제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냄.

※ 신목(神木)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 오색 댕기를 매어 둔 나무.

▶▷ 물치리(沕淄里)

- 제당형태 : 기와지붕에 붉은 벽돌 기둥, 문이 없는 당집 형태임. 돌로 만든 위패에 대동성황지신위(대동성황지신위)라 새겼다.
- 제당위치 : 마을 서쪽 산에 있으며 남향으로 위치함.
- 제의시기 : 봄에 점을 쳐서 택일함.
- 제의내용
  - 이장 중심으로 마을 주민이 참석하며 참석자 가운데 제관을 선정
  - 소 또는 돼지머리, 떡, 술, 메, 과실.
- 기　　타 : 예전에 성황당 밑에 산소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만들었다가 주민들이 봉분에 인분을 끼얹어 그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옴.

▶▷ 방축리(防築里)

- 제당형태 : 잣나무 신목(높이 13m, 둘레 4m).
- 제당위치 : 마을 북쪽 산 정상.
- 제의시기 : 특정한 때가 없이 인근 주민들이 택일.
- 제의내용
  - 밤중에 물을 한 동이 길어놓고 제물 진설.
  - 가정 제사와 유사.
  - 주과포, 메, 떡.
- 기　　타 : 400년 전 김씨 가문의 외아들이 병이 나자 승려가 마을 북쪽 산에 외로이 있는 나무에 청홍색 천을 두르면 낫는다고 하여 오늘날에도 이것을 믿고 개별로 어디가 아프면 가서 기도를 하나 전체적으로 기도를 하지는 않음.

▶▷ 사교리(沙橋里)

- 제당형태 : 소나무 신목 9m 둘레 1m.
- 제당위치 : 마을 서쪽 산꼭대기.

▶▷ 상복리(上福里)

- 제당형태 : 상수리나무 신목(높이 12m, 둘레 3m).
- 제당위치 : 마을 서쪽 700m 지점의 동남향.
- 제의시기 : 1년에 1회, 봄 농사짓기 전에 택일, 새벽 6시경.

- 제의내용
  - 산천지신, 토지지신, 성황지신으로 제사를 지낸다.
  - 이장을 제외한 6명 내외의 주민 중 생기를 맞추어 진행.
  - 창호지를 나무에 묶고 지방을 써 붙이고 제사.
  - 소고기, 주과포 등 간단한 상차림.
- 기　　타 : 매년 1회씩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무속인이 굿을 하러 오기도 함. 굿을 할 때 신목에 한지를 길게 매달고 있음. 하복리는 지내지 않고 있음.

▶▷ 장산리(長山里)

- 제당형태 : 신목 그루터기만 남음.
- 제당위치 : 야산 뒤쪽에 위치.
- 제의시기 : 봄과 가을.
- 제의내용
  - 마을에서 가장 고령자를 선출.
  - 참석자는 마을 이장과 고령자.
  - 돼지머리, 주과포.

▶▷ 적은리(積銀里)

- 제당형태 : 당목은 소나무로 높이는 약 15m 둘레가 1.5m 이다.
- 제당위치 : 마을 중앙 산 중턱인 속칭 가채미 고개 마루에 있다.
- 제의시기 : 일제강점기까지는 전 주민이 매년 봄철에 서낭제를 지냈으나 해방 후 중단되었다가 6.25 한국전쟁 후부터 제를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마을에 연로하신 유지들이 제를 지냈으나 당목이 없어진 후부터 중단되었다.

▶▷ 전진1리(前津一里)

- 제당형태 : 당집. 흙담을 쌓고 시멘트 제단을 만들었음. 실내에 위패나 특별한 시설은 없음.
- 제당위치 : 마을 옆.
- 제의시기 : 봄철 음력 3월 택일, 가을 음력 9월 9일.
- 제의내용
  - 이장과 주민 3~4명이 제관을 함.
  - 제관 선출방식은 생기를 맞추고, 여자는 가림.
  - 돼지고기, 주과포, 시루떡.

▶▷ 전진2리(前津二里)

- 제당형태 : 대지 10평기와 목조 집 1칸, 현판에 성황당이라고 씀.
- 제당위치 : 마을 동남방 해변 성황봉
- 제의시기 : 봄철 음력 3월 30일, 가을 음력 9월 9일.
- 제의내용
  - 용왕제 형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 이장과 반장 등 나이에 따라 생기를 맞추고 제관을 정함.
  - 참석자는 이장과 주민 중 고령자.
  - 돼지고기, 주과포, 시루떡.

▶▷ 침교리(砧橋里)

- 제당형태 : 사방 1미터 슬레이트 지붕의 벽돌담으로 내부에는 한지를 매달았음.
- 제당위치 : 마을 북쪽 뒷산 중앙부.
- 제의시기 : 10월 중순.
- 제의내용
  - 무속인이 참석함.
  - 이장과 반장, 주민이 제관이 되어 참석.
  - 주과포, 흰떡, 메.

▶▷ 회룡리(回龍里)

- 제당형태 : 엄나무가 신목(높이 11m, 둘레 3.5m)이며 당집은 없음.
- 제당위치 : 마을 가운데에 위치하였음.
- 제의시기 : 음력 11월 중 택일.
- 제의내용
  - 제관 외 3명을 생기에 맞춰 선출.
  - 제사 후에 소금을 묻고 음복함.
- 기　　타 : 제주가 3일전 목욕재계하고 당집에 금줄을 쳐서 외부인 출입을 금함.

양양지역의 제사의식

펴낸날 _ 2021년 12월
편　집 _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펴낸곳 _ 양양문화원 033) 671-8762
만든곳 _ 대양프리컴 033) 257-3400

※ 본 책자에 실린 모든 이미지의 복제 및 무단사용을 금합니다.